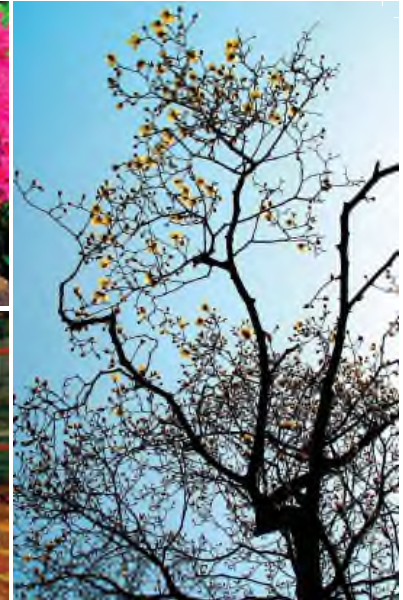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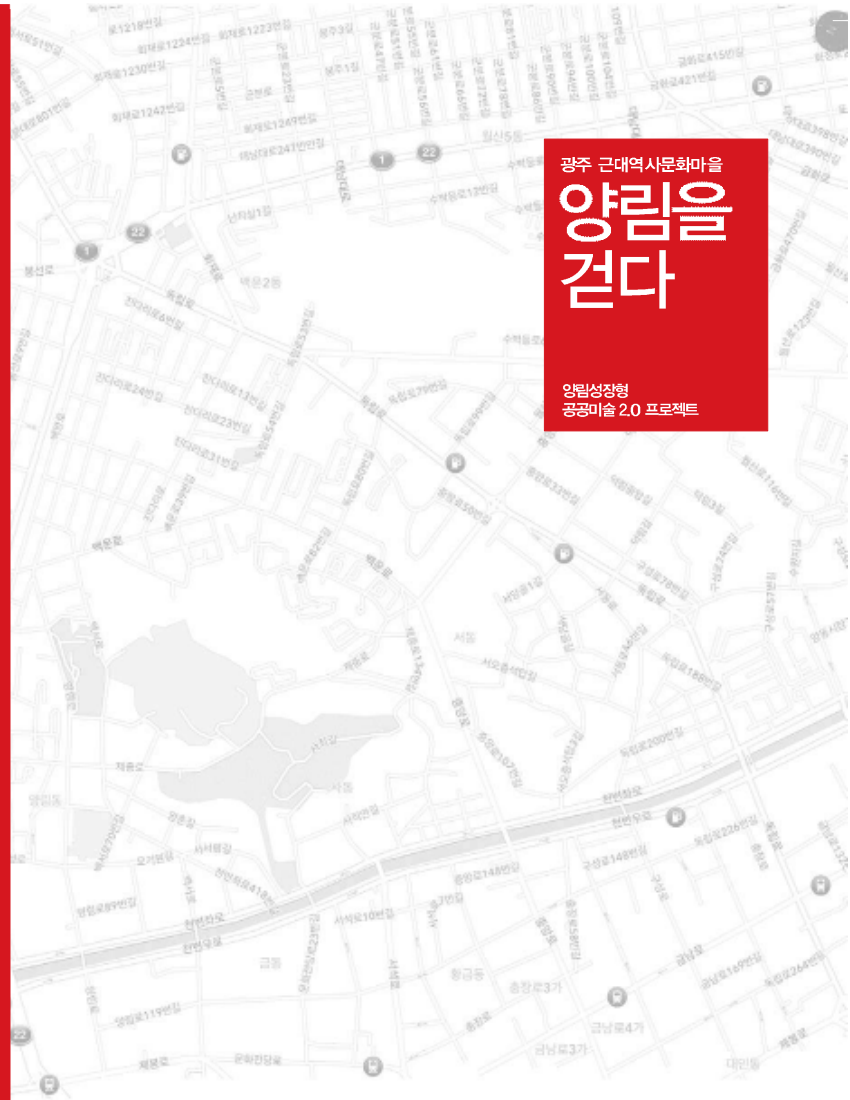




광주 근대역사문화마을

양림을 걷다

양림성장형
공공미술 2.0 프로젝트



수피아동산길
양림동산길
사작공원길
양림오거리길
양림교회 제증원길

양림을 간다

양림성장형
공공미술 2.0 프로젝트



발간사

주민이 발로 뛰고 찾아낸 양림동의 이야기들

서영진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햇볕이 따사로운 버들숲 마을 양림동은 근대 광주의 문화와 역사가 숨쉬는 보물입니다. 아기자기한 숲과 언덕, 오래된 교회와 선교사 사택에, 그리고 우리들 마음 속에 양림동과 광주의 역사가 커케이 쌓여 왔습니다.

《광주 근대역사문화마을, 양림을 걷다》는 양림동의 품속에 담긴 이야기들을 꺼내 함께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누는 듯한 스토리북입니다.

양림동 주민들로 구성된 스토리탐험대가 지난 여름부터 땀을 흘려가며 찾아다니고 만나고 보고 들은 이야기들을 알알이 모아 담았습니다. 탐험의 결과를 글로 옮기고 사진을 찍고 편집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아니기에 투박한 데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정겹고 소중한 마음의 글로 다가옵니다.

이 책은 외지인 손님들에게는 친절한 안내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광주 시민들에게도 양림동을 더 사랑하고 찾아올 수 있는 촉매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좀 더 욕심을 내 보면 이 책이 양림동 주민들에게 새로운 자량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족한 데가 있다면 주민들의 뜻과 지혜를 모아 더 보충하고 더 멋진 양림동 이야기 책으로 다듬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양림동 주민이 만든 첫 번째 스토리북이라는 큰 의미를 더 빛내는 일일 것입니다.

요사이 마을공동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풍부한 역사 문화적 자산을 바탕으로 광주에서는 마을만들기 운동을 초기에 시작한 양림동에서도 주민공동체가 회복되고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근대역사문화마을로 지정된 이후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양림동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광주문화재단도 양림공공미술 2.0사업, 스토리탐험대와 함께 이 아름다운 발걸음에 동참했습니다.

저희 광주문화재단은 앞으로 문화와 예술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고 문화도시 문화마을을 가꾸는 일을 깨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광주 근대역사문화마을, 양림을 걷다》 출간을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면서 저희의 다짐을 다시 확인합니다.

감사합니다.

프롤로그

양림동

Yanglimdong

여시골에서
서양촌으로,

또 '문화마을'로 거듭나다

양림의 본래 의미는 '버드름'에서 시작됐다. '버드름'이란 산 능선이 밖으로 뻗어나간 것을 의미한다. 양림산에서 시작된 산 능선이 양과정 능선으로 이어져 광주천에 닿은 모습이 바로 버드름이다. '버드름'이란 이름이 '버드'는 버들, 왕버드나무를 거쳐 楊으로 표기되고, '름'은 발음이 비슷한 '林'을 취해 '양림'이라 했다는 설이 유력하다.

양림산에 관한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도 찾을 수 있다. 조선조 기에도 이 지역이 '양림'이란 이름으로 불렸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다만 한자어 표기는 지금과 달랐을 것이다.

양림동은 사직산과 양림산으로 이어지는 능선의 동남사면에 자리 잡은 전통 주거지역이다. 1900년대 양림산은 광주읍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읍성안의 현오스러운 것, 전염병에 걸려 죽은 아이들 시체를 버리거나 나무에 묶고, 걸어두던 풍장터로 쓰였다. 때문에 이를 노리는 여우나 늑대, 까마귀들이 많았다. 그래서 '여사골' 혹은 '도깨비골'이란 이름이 붙었다.

1904년 미국 남장로교 유진 벨(배유지), 오웬(오원) 등 선교사들이 이곳에 들어와 교회와 학교, 병원을 개설해 '서양촌', '광주의 예루살렘'이라 불렀다.

양림동은 광주 선교의 전초기지를 했던 곳이다. 광주양림(예장개혁), 광주양림(예장통합), 양림(기장), 명성교회, 침례교선교회 등 교회가 있으며, 수피아여중고, 가톨릭호대학, 호남신화대학, 가톨릭병원 등이 있어 기독교촌으로서의 특색을 강하게 띠고 있다.

광주천을 건너면 광주 도심 지역과 연결된다. 하지만 일제강점기까지만 해도 이곳은 사골 뱀새가 짙게 풍기는 동네였다. 인구도 일제말엽까지 양림동에 1,500여명이 모여 사는 정도였다. 도심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그동안 경전선 철도로 인한 소음과 낡고 오래된 가옥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했다. 1950년대에는 시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양림동에 많이 입주하면서 다형 김현승 시인의 명성과 함께 시인의 마을로 부상했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문화마을'로 불리며 각종 문화예술사업과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1 푸른길 공원 2 양림동산의 봄날 3 선교사 요원으로 오르는 길
4 양림교회와 오웬기념각 벽면에 열개수가 보인다

차례

발간사 주민이 발로 뛰고 찾아낸 양림동의 이야기들_서영진·04
프롤로그 역시골에서 서양촌으로, 또 '문화마을'로 거듭나다·06

01 수피아동산길을 걷다

수피아여중·고·17
광주 3·1민세운동 기념동상·20
윤형숙(윤혈녀·尹血女)·25
소심당 조아라·29
수피아 옛 강당·32
수피아 로렐나무·35
윈스브로우홀·39
수피아홀·43
배유지 기념 예배당·46
참한학생탑·51
수피아 인물 인터뷰·52

02 양림동산길을 걷다

양림동산의 나무들·59
양림동 호랑가시나무·62
서서평(Elizabeth J. Shepping)·65
선교사 사택·69
선교사 묘원·74
문용동 전도사 추모비·77
다형 김현승 사비·78
사직도서관·83
선교기념비·85
양림동 카페·86

03 사직공원길을 걷다

충현원·91
팔각정·97
사비·99
사직공원·105
사직폴리·109
사동 최부자집·113
사직 포크음악의 거리·117
순국경찰총훈탑·121
양파정·123

양림동 문화시설·126
양림동 맛집·127

04 양림오거리길을 걷다

탕골동굴 · 131
아장우 가옥 · 135
최승효 가옥 · 138
정공업지려와 충견상 · 143
오월어머니집 · 147
랭간땃밭&참새야 놀자 · 151
승일학교 · 155
양림동 토박이 정익순 할머니 인터뷰 · 158

양림동 골목 시랑방 · 162

05 양림교회·제증원길을 걷다

오웬기념각 · 167
양림교회 · 171
어비스 기념관 · 175
3·1만세운동 발상지 · 179
정윤성 가옥 흉상·거리 · 181
푸른길 공원 · 185
광주기독병원 · 188
선교사기념비와 5·18민중항쟁 사적지 표시석 · 193
양림동 터춤택감 김성봉 원장 인터뷰 · 196

양림동과 인연을 맺은 인물들 · 200

에필로그 · 205
스토라탐합대 활동일지 · 207

01

수피아동산 길을 걷다



수피아여중
광주 3·1만세운동 기념동상
윤형숙(윤철녀 尹血女)
소심당 조아라
수피아 옛 강당
수피아 로열나무
원스브로우홀
수피아홀
배유지 기념 예배당
참관학생탑
수피아 인물 인터뷰

수피아여중

선교사 사랑방에서 출발한 명문 사학

왜 양림동 이야기의 시작이 수피아여중·고부터냐고 반문하는 이가 있을 듯싶다. 결론부터 말하면 ‘학교 로서가 아니라, 이곳의 역사와 문화를 빼놓고는 양림동을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피아사람들, 학교 건물, 그리고 나무들……’.

오늘날 양림동의 수피아여자중·고등학교의 전신인 수피아여학교는 1908년 미국 선교사 유진 벨의 사택에서 시작했다. 사직도서관 일대에서 몇 명의 여학생들을 가르친 것이 지금의 수피아여중·고의 출발점이었다. 선교사의 사랑방에서 비롯된 학교는 한동안 특별한 이름 없이 ‘광주여학교’라고 불렸다. 1910년 선교사들의 보고서나 소개서 등에는 모두 ‘광주여학교’라고 쓰여 있다.

그러던 중 미국의 한 부인이 자신의 여동생인 스피어Speer를 애도하는 뜻에서 기부한 자금으로 1911년 수피아홀을 준공했는데, 이것이 수피아여학교라는 교명의 기원이 됐다.

한편 구에라 선교사는 ‘Jennie Speer School’이라는 보고서에서 수피아여학교의 교명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1911년에 스티스M.L.Stanis부인이 우리 학교 건축비로 5천 달러를 줬으며, 그녀의 여동생을 기념하기 위해 학교의 이름을 제니 스피어 기념 여학교Jennie Speer Memorial School for Girls 라 했다. 1



층은 기숙사이고, 2층은 세 개의 교실로 된 화색벽돌 건물이었다. 한 교실에는 40명의 여학생을 앉혔고, 한 교실에도 18명이, 그리고 다른 교실에는 10명의 여학생이 자리했다.”

수피아여학교의 이름은 1937년 폐교 때까지 쓰였다. 처음에는 보통과로 시작했으나 곧 고등과를 뒤 오랫동안 보통과 6년과 고등과 4년으로 운영됐다. 1928년에는 보통과가 폐지돼 송일학교와 통합됐고, 수피아는 고등과 4년으로만 존재해 폐교때까지 이어졌다. 해방 후 복교시에는 수피아여자중학교(6년제)로 시작했고, 1951년 교육법 개정에 따라 수피아여자중학교(3년)와 수피아여자고등학교(3년)로 분리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수피아여학교는 기독교 신앙과 신문물을 전파한 것 외에도, 학생들로 하여금 민족이나 지역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기여토록 교육했다. 1919년 만세운동 당시에 적잖은 참여자가 이 학교 학생이나 교직원이었던 것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수피아는 광주지역 3·1운동과 광주학생독립운동, 신사참배 거부 등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명문 사학으로 성장했다.

오랜 역사만큼 수피아여중 고에는 유서깊은 건물도 많다.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의 건물로 쓰였던 수피아 옛강당, 윈스브로우홀, 수피아홀, 커티스메모리얼홀 등이 그 예다.

은단풍나무, 낙우송, 폐간나무, 아까시, 양버즘나무, 느티나무, 플라타너스 등 100년이 넘는 역사와 함께 학교를 지켜온 나무들도 눈여겨 봐야 한다. 또한 교정 여기저기에 다양한 기념식수들이 있다.



위 수피아여중 교실과 우측으로는 기독병원 아래 수피아여고 건물

“대한독립 만세!” 그날의 함성이 들린다

수피아 대강당 앞에는 광주 3·1만세운동 기념동상이 우뚝 서 있다. 이 동상은 1919년 3월 10일, 광주 3·1만세운동에 앞장서서 만세를 부르다가 일본 경찰에 끌려가 재판을 받고 옥고를 치른 2명의 교사와 21명의 수피아여자학교 학생들의 애국정신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동상은 수피아여자중고총동창회 주도로 동창회 모금액 2천만원, 시지원 4천만원이 투입돼 1995년 건립됐다. 뒷면에는 당시 수피아 교사와 학생들 중 일제에 의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옥고를 치른 23명의 이름이, 앞면에는 〈역사의 별이 되어〉라는 추모시가 오롯이 새겨져 있다.

한없이 어리고 연약하기만 했을 여학생들이 조국 독립을 향한 열원을 불태우며 태극기를 힘차게 흔들었을 광경을 생각하니 동상 앞에서는 순간 숙연해진다.

광주 3·1만세운동 당시의 상황으로 거슬러 올라가 본다.

1919년 2월 중순경 감마리아 선생(수피아교사 역임)이 동경에서 2·8독립선언서를 가지고 와 양림리 언니(김함라 여사, 수피아교사 역임, 남궁혁 장로의 부인)에게 전해줬다. 남궁혁 장로의 집에서 광주의 애국 청년들과 기독교인들이 모여 광주 3·1만세운동 거사준비 모임을 가졌다. 교사 박애순은 학생들에게 독립운동의 필요성을 가르쳤고 독립운동선언서 약 50매를 수피아여자학생들에게 나눠줬다.

수피아의 교사와 학생들은 만세운동을 선도하며 3월 10일 만세당일에 부동교 밑 작은 장터를 거쳐 당시 경찰서 앞까지 행진했다.

3월 10일 광주 전역에서는 다양한 계층이 만세운동에 참가했다.



역사의 별이 되어

-수피아 애국지사 23인을 추모하며

천추에 이름 석자 누구나 남기는가
 기미년 3·1운동 선두에 서서
 구국의 일념으로 충성을 맹세하고
 태극기 앞세우고서 독립만세를 외쳤네
 일제의 총칼앞에
 나라가 함방이 되자
 자유없는 속박에서 사느니보다
 사슬을 끊기 위해 목숨 걸고 싸웠네
 억울한 옥살이에
 모진 고문을 당하여도
 의기로 이겨낸 고결한 애국 얼은
 역사의 별이 되어 무궁토록 빛나네



• 교사 박애순 진소애

• 학생 홍순남 박영지 최경애

양태원 김필호 임진실

고연홍 박상순 하영지

강화선 이나훔 최수향

이태옥 김양순 양순희

윤철녀 김덕순 조옥희

이봉금 김안순 홍승애



일제는 우편국(현 광주충장로우체국) 앞에서 기마헌병대를 주축으로 시위 참가자를 가혹하게 진압·검거했다. '광주 3·1만세운동 기념동상'의 인물표정에서 그 날의 격렬함을 미약하게나마 느낄 수 있었다.

그와중에 한쪽 팔이 잘리자 다른 한쪽 팔로 힘차게 태극기를 흔든 윤형숙(윤혈녀)의 이야기는 오늘날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안타깝기만 하다. 그는 끝까지 만세를 불러 일본진압병력을 놀라게 했고 그 사실이 3월 11일자로 일본 육군성에 전보로 보고 되기도 했다.

외팔, 외눈으로 살다 간 '여수의 유관순'

수피아여고 생도였던 윤형숙은 '여수의 유관순'이라 불린다. 의로운 생애를 살다간 그녀를 아는 이는 많지 않다.

잃어버린 조국을 찾기 위해 '대한독립만세'를 목메어 외치며 태극기를 휘날리던 원팔은 일제강탈의 변죽이던 칼날에 탕탕 질려 나갔다. 그녀는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진 왼손에 든 태극기를 오른손에 바꾸어 들고 만세를 불렀다고 한다.

그녀는 1898년 9월 13일 여수시 화양면 창무리에서 가난한 농부 윤치운의 3남 2녀 중 장녀로 태어났다. 가난한 집안에, 어머니마저 일찍 여윈 그녀는 선교사 집에 들어가 집안일을 거들며 살았고 일하면서 초등학교를 다녀 우등으로 졸업했다. 주인 선교사는 예쁘고 부지런하며 성실한 그녀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줬다.

윤형숙은 선교사의 도움으로 광주 수피아여학교에 진학했다. 그녀는 열심히 공부해 반장을 맡았고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울분을 토하며 지하 독립운동에 가담했다.



양림동 오거리에서 자는 3·1 만세운동 재현 행사

1919년 3월 10일, 윤형숙은 수피아여고, 숭실고의 기독교생을 이끌고 광주시민 결기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했다.

“경찰이 두렵다면 이 자리에 서지 않았다. 목청이 터질 때까지 외칠 것이다.”

그녀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왼팔을 잃고 응급치료를 받은 후 곧바로 경찰의 취조를 받게 되고 그해 4월 30일, 일본 보안법 위반으로 광주 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른다.

피를 너무 많이 흘린 데다, 옥고를 치루며 크게 고생한 탓에 끝내 오른쪽 시력마저 잃고 만다. 그때 왼쪽 눈에 거의 실명 상태였다.

출옥 후 외팔이, 외눈박이가 된 윤 열사는 “전남을 떠나랴”는 4년간의 격리조치 명령을 받게 된다.

선교사의 도움으로 함경남도 원산 마르다 원슨 신학교(한국 최초의 여성신학교)에서 공부했고 만세운동때 입은 팔의 중상과 감옥생활에서 치른 고문의 후유증으로 힘든 나날을 보냈다.

그녀는 요양차 전주 기독병원으로 내려왔다. 전주의 기독교교회 사감으로 일하며 치료를 받아 건강이 조금 나아진 듯했으나 한쪽 시력은 완전히 실명되고 말았다. 치료를 마치고선 병원을 나와야 했고 미국인 선교사 병원장의 추천을 받아 고창에서 기독교유치원 선생으로 6년간 근무했다. 그러나 외팔, 외눈에 폐렴까지 겹쳐 도저히 근무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1939년, 건강이 더욱 악화되자 오빠가 살고 있는 여수로 내려가 청소년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며 문맹퇴치 운동을 벌였다.

1945년 해방, 그녀는 태극기를 그려 거리로 나와 나눠주고 함께 흔들며 해방의 기쁨을 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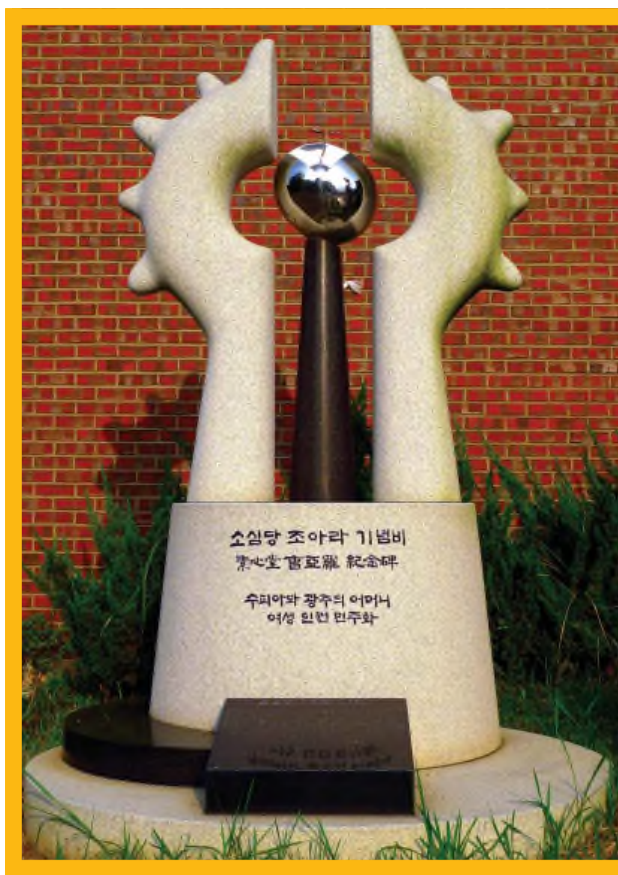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여수를 점령한 북한군이 불순분자 색출령을 내렸다. 8명의 기독교인들이 잡혀왔다. 9월 28일, 수도 수복이 되던 해 윤형숙 여수제일교회 전도사는 지역 기독교인과 둔덕동 과수



윤형숙 묘

원에서 인민군들에게 처형당했다.

그녀의 시신은 고향 마을이 보이는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 산 80번지 묘소에 묻혀 있다.



한평생 사회봉사·민주화에 헌신



소심당 조아라

“이 모든 사건은 저지른 사람, 만든 사람이 있다고 믿는다. 또한 하나님과 역사가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언젠가 전부 드러날 것이다. 사실 우리는 아무런 죄가 없고 누군가 불을 질러냈기에 그 불 끄러 들어간 사람이다. 그런데 이 나라의 법은 어떻게 된 법이기에 방화범은 안 잡고 불 끄러 간 선의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죄인 취급하는지 그것이 의아스럽다.”

— 조아라 여사 5·18민주화운동 관련 군사법정에서의 최후진술 중에서

조아라 여사(1912~2003)는 평생 여성운동과 사회복지사업, 그리고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대표적 여성 지도자다. 평생 광주지역을 떠나지 않고 소외여성과 고아를 돌보는 사회봉사와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다.

지난 2008년 10월, 수피아여자중·고등학교는 100주년 기념식에서 학교 안에 ‘소심당 조아라 기념비’를 세웠다. 알의 형태와 움트는 새싹을 감싸고 있는 외형의 커다란 구조물은 여성, 인권,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세상을 향해 널리 퍼져나가는 의미를 형상화한 것이다.

알과 새싹을 작품 중심부에 배치해 수피아의 어머니, 민주화의 어머니, 조아라 여사의 업적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자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담았다.

기단은 조아라 여사의 업적과 역사가 수피아동문들에게 잔잔한

물결처럼 퍼지길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1912년 나주군 만남면 대안리에서 태어난 그는 1927년 광주 수피아여고보에 입학, 교내 연극반을 만들어 민족주의 독립정신을 일깨우는 등 일찍부터 민족주의 운동가의 면모를 보였다. 특히 수피아여학교 진학 당시 담임 김필레 선생을 만나 YWCA에 평생 헌신하는 계기가 됐다.

1933년 수피아여고보 교사로 재직 중에는 광주학생운동에 가담한 사실이 발각돼 1년간 옥고를 치렀고, 1936년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이듬해 학교는 폐교되고 말았다. 이 일로 그는 김필레 선생과 함께 옥고를 겪게 된다.

조아라 선생은 결코 신념을 굽히지 않는 여장부였다. 그의 명쾌한 논리와 찌렁찌렁한 연설 소리는 주변 사람에게 사기를 북돋아 줬다.

해방 이후에는 1947년부터 1973년까지 광주YWCA 총무를 맡아 사회봉사활동과 여성의 지위 향상에 앞장섰다. 여사는 1952년 전쟁고아 등 불우아동 복지사업에도 앞장서며 성빈여사(聖貧女舍)를 세우고, 또 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불우소녀 가정들을 위한 야간 중학교인 호남여숙(湖南女塾)을 열었다. 1962년에는 청소년 야학인 별빛학원과 윤락여성들의 직업 훈련을 위해 계명여사를 열어 이후 35년간 빈민여성들의 사회진출을 도왔다. 1992년에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열린 남북여성토론회에 한국 여성계 대표로 참석했다.

또한 5·18에 얽힌 일화는 유명하다. 1980년 5월, 민주화운동이 한창이던 그때 조아라 선생은 서울로 출장가던 중, 주변의 민류에도 불구하고 “광주 시민들을 내버려둘 수 없다”며 곧바로 광주로 돌아와 활동하며 시민들을 더욱 뭉클하게 했다. 구금된 여성들을 감싸 안고 남긴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의 한마디는 모든 이들의 애국심과 단결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진모노님, 명노근, 안상계, 김남표, 박순이(한국 최초 영미원-현 광주충현원 설립), 여성숙 의사(결핵환자 퇴치운동가)와 같이 한 조아라 여사(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

그는 수습대책위원으로 활동하다가 계엄군에 붙잡혀 상무대 영창에서 6개월 동안 옥고를 겪었다.

조아라 여사는 특히 평생 건축을 많이 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YWCA 대의동회관, 유동회관, 계명여사, 성빈여사, 수피아도서관, 수피아강당 등의 건축위원장으로 활동했다.

1965년 용신봉사상을 비롯해 1988년 광주시민대상을 수상했다. 2003년 향년 91세로 계명여사 사택에서 생을 마감했다.

수피아 역사의 현장, 전남대 의대의 전신

수피아여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적벽돌에 초록색 지붕을 받치고 있는 수피아 옛 강당이 자리하고 있다. 수피아여고 100년사에는 이 건물이 1932년 준공됐다고 나와 있다. 많이 낡긴 했지만, 수피아의 역사를 증명해주는 중요한 시설 중 한 곳이라 칭할 만하다. 근현대사의 아픔을 간직한 곳이다.

1944년 광주의원(현 전남대 의대)이 최흥중 선생 등의 모금에 힘입어 이 곳에서 개교식을 가졌다. 이후 광주의전은 신사참배 반대로 1937년 9월 폐교한 수피아의 본관(원스브로우홀)을 빌려 썼다. 또한 미 군정청이 해방 직후부터 1947년 5월 무렵까지 점유해 사용하기도 했다. 6·25전쟁 때에는 북한군이 사용하기도 했다.

수피아 옛 강당은 독특한 '박공지붕' 형태(gable on hip)를 한 것이 특징이다. '박공지붕'이란 보의 좌우에 2개의 장방형 사면을 붙인 것과 같은 모양의 지붕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책을 펼쳐서 엮어놓은 모양을 연상하면 된다.

건축 당시, 중앙 출입구에 캐노피를 부가해 출입자들이 비를 맞지 않도록 배려했다. 창대들을 댄 수직형의 오르내림창은 옛 건축물의 정취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수피아 옛 강당은 300여㎡ 규모의 단층 건물로, 준공 당



시에는 농구, 체조, 무용 등의 수련장으로 쓰였고 체플장소로도 유익하게 사용됐다. 특히 강당은 오랫동안 수피아의 자랑인 농구부에서 써왔으나, 지금은 대규모 시설을 갖춘 대강당과 체육관이 지어져서 주로 체조와 무용 등을 위해 사용된다.



“20년 후에 꼭 만나요”

먼 훗날을 위하여..
AFTER 20 YEARS
HIC학급기념식수

낙우송(落羽松) 높이 1m, 밑둘레 0.12m, 1963년 10월 9일 심음

— 광주수피아여자고등학교 1962학년도 재학년 C반 일동
학생대표 조은, 담임교사 한덕선

수피아여고 입구를 지나 광주 3·1만세운동 기념동상에서 왼쪽으로 돌면 우뚝 솟은 낙우송 한 그루가 눈에 띈다. 일명 ‘로템나무’다. 로템이 나무의 한 종류라고 착각할 법 하지만, ‘로템나무’는 1963년 수피아여고 학생들이 이 나무를 식재할 당시 붙인 이름이다. ‘로템’은 성서에 나오는 나무로, ‘위로의 나무’, ‘쉼터’로 해석하면 된다. 세상 풍파에 시들려 지칠 때면 이 나무 그늘에서 쉬어가자는 의미로 심어졌다.

당시 재학생들에게 수피아학교는 ‘학교’ 그 이상이었다. 교육의 장에 국한되지 않고 교사와 학생들은 이곳에서 인생을 이야기하고, 나라를 걱정했으며, 사랑·봉사·나눔 정신을 길렀다.

1963년 10월 9일, 낙우송이 심어졌을 때엔 이 나무는 높이 1m에 둘레 12cm에 불과했다. ‘낙우송’은 새의 깃털이 떨어지는 나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현재는 5m 가까이 훌쩍 자란 키

에 두 사람이 서로 팔을 벌려야 안을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 다닥다닥 붙은 나무껍질은 세월의 더께를 고스란히 입고 있었다. 흐드러진 나뭇가지는 제 힘에 이기지 못해 꺾어져 버리기도 했다.

한덕선(15대 수피아여중 교장) 선생이 담임을 맡은 1학년 C반의 학생들은 1963년 10월 9일, 20년 후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교정에 한 그루 나무를 심었다.

20년 후 1983년 10월 9일에 그때의 학생들이 모교 교정에서 다시 만났다. 그들은 1963년 당시의 교실이 있던 수피아홀에서 학급 예배를 드리고, 출석을 불렀다. 또 <메기의 추억>도 합창하며 20년 전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다시 만난 기념으로 낙우송 아래에 비석을 만들어 이렇게 새겼다.

“그로부터 20년의 긴 세월이 지난 오늘, 우리는 다시 모였다. 우리 나무는 높이 9m, 밑둘레 1m로 자랐고 우리의 모습도 많이 달라졌지만 내 어머니 같은 수피아의 품에서 굳게 뚫어진 우리의 우정만은 영원하리라. 앞으로 오는 많은 나날을 우리는 바르고 아름답게 살아갈 것이며, 먼 훗날 또 20년 후에 이 자리에서 모두 만날 것을 기약하며, 이 표찰비를 세운다.”

- 1983년 다시모인 HIC들

H는 고등학교, 1은 1학년, C는 반 이름을 의미한다.

이 13회 동문들은 20년 전 약속대로 다시 20년째 되는 2003년 10월 3일에 만났다.

“1963년에 이 나무를 심고 20년이 되던 날 우리는 여기 모였으며 또

20년이 지나서 오늘 이 자리에 다시 모였다. 그리고 또 20년 후 이 나무 밑에 모이기로 굳게 약속하였다. 나를 길러준 또 하나의 어머니-수피아. 삶에 지치고 외롭고 또 서로가 그리울 때 우리의 안식처가 되는 로망나무 그늘이여라. 2003년 10월 3일.”

- 광주수피아여자고등학교 1962년도 제1학년제13회 졸업
A반대표 박오장, B반대표 이영현, C반대표 조은

이 일이 자연스럽게 후배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면서 수피아의 홈커밍데이(충동창화·모교 방문의 날) 주관기는 졸업 후 20년째 되는기가 맡게 됐다. 사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20년이 되면, 여러 측면에서 생활이 안정되고, 시기상으로도 모교나 옛 은사, 친구들이 그리워지는 것도 주관기를 졸업 후 20년째로 정하게 된 요인이 됐다고 한다.



90년 세월 속에도 나무바닥 하나 끄떡없다

수피아여학교의 본관인 원스브로우(Winsborough)홀은 1927년에 지어진 지하 1층, 지상 2층의 붉은 벽돌집이다. 미국장로회의 부인 전도회가 원스브로우 여사로부터 생일 현금 5만 8천 875달러를 기증받아 이 건물을 세웠다.

특히 원스브로우홀은 남장로회 선교사 중 건축을 전공한 서로독(Swinehart) 선교사가 건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주 신흥학교의 리차드슨 홀도 이와 같은 모양이었으나 그 건물은 화재로 소실돼 지금은 원스브로우홀만 남아 있다.

원스브로우홀은 그 전에 지어진 회색 벽돌 건물인 수피아홀, 커티스메모리얼홀과 대조를 이루며 광주 근대 건축의 변천사를 보여주고 있다. 좌우 대칭의 중복도형으로, 정면 출입구에 설치된 아담한 돌출 현관인 포치가 인상적이다. 지금은 건물 앞 화단에 형형색색의 꽃이 피어 건물의 운치를 더해준다.

원스브로우홀은 건축면적이 699㎡이고, 연면적은 1천 414.5㎡로 작은 규모지만, 매우 견고하게 지어졌다. 90년 가까이 흐른 세월 속에서도 교실과 복도, 계단은 지금도 별 이상 없이 사용되고 있다. 모두 나무바닥으로 되어있지만 지금도 삐걱거리는 소리 한 번



나지 않을 정도로 튼튼하다.

“댕~ 댕~ 댕.”

예나 지금이나 수업의 끝을 알리는 종소리는 학생들이 가장 반기는 소리일 터. 종이 매달린 1층 현관을 지나 들어가면 가운데 복도가 있는데, 앞쪽은 사무실과 교실로 돼 있고, 뒤쪽 중앙은 강당으로 꾸며져 있다. 이곳은 예배처소로도 쓰였으며, 양 옆에는 교실이 있다. 해방 후에 학생수가 많아지면서 체육관을 강당으로 활용하고, 강당은 교무실로 바뀌었다. 지하실은 앞쪽만 돼 있는데, 보일러실과 공작실 등이 있고, 건축 당시 이미 수세식 양변기가 설치됐다고 한다.

1911년 지어진 수피아홀, 1927년 건축된 윈스브로우홀은 수피아의 역사와 전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울이다. 이곳은 2008년 2월 28일 문화재청 등록문화재 제370호로 지정됐다.

윈스브로우홀 옆에 있는 음악관은 1935년 지어졌다. 음악실, 가사 실습실, 과학실로 사용되고 있는데, 당시에도 수피아는 이 공간을 특별 교실로 활용했다. 해방 후 이 별관은 여러 용도로 사용됐다. 그때에 이미 피아노 연습실을 여럿 설치했음을 미뤄 볼 때, 수피아의 음악적 전통성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수피아 출신들은 찬송가를 칠 수 있어야 한다’는 선교사들의 교육방침에 2층 다락방에는 오르간 연습실도 따로 마련됐다고 한다.

윈스브로우홀과 우천체육관, 특별교실 등은 당시 한국에서 가장 잘 지어진 현대식 건물들이었다. 뿐만 아니라 건물 안 시설도 훌륭했다. 여성을 위한 교육적인 도구도 많이 갖춰져 있었다. 재봉실에는 재봉틀이 50대 가량 있었고, 가사실에는 요리대가 50대 설치됐으며, 도서실에는 책이 넘쳤다. 음악실과 기악실에는 피아노, 풍금이 있었다. 특히 기악실 벽을 바를 때 사탕가루를 넣어서 마르면 소리가 새지 않는다고 해서 벽마다 사탕가루를 발랐다고 한다.



수피아여중·고교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

수피아홀은 수피아여학교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 미국 스티스 여사 Mrs. M.L. Stiers가 세상을 떠난 동생 제니 수피아 Jenni Spier를 추모하기 위해 5천달러를 기증한 것을 계기로 1911년에 지어졌다.

당시 미국에서는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광주에서 여학교를 경영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큰 이슈가 됐다. 아들을 중국에 보낸 스티스 여사는 동생을 하늘로 보내고, 보람 있는 일을 하려고 마음 먹었다. 그때 마침 한국에서 새로운 여학교가 시작됐으나 시설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던 말을 듣고 기꺼이 헌금을 냈다.

이곳에선 학교가 시작되고 여학생들은 해마다 불어나 교실이 절실했다. 스티스 여사의 소식을 들은 선교사들과 한국인 교사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곧 학교를 지을 만한 곳을 물색하던 중, 좀 외지기는 했으나 선교사들의 집이 있는 곳에서 남쪽으로 산을 끼고, 오른쪽 산 중턱에 남향으로 양지 바른 곳을 선택했다.

이곳이 양림동 251번지로, 당시에는 가시나무가 뿔뿔하고 묘들이 많이 있는 황폐한 곳이었다.

수피아홀이 지어질 당시, 우월순 선교사는 병원



진료 틈틈이 건축현장을 찾아 일꾼들을 독려했다고 한다.

수피아홀은 네덜란드식 벽돌쌓기 구조로 지어졌으며, 처음에는 1층은 기숙사와 집무실, 2층은 교실로 사용됐다. 중앙의 현관 포치 위쪽에 박공을 뒤 정면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1층과 2층 사이에 돌림띠로 장식돼 있고, 수직의 긴 창이 반복적으로 배치됐다.

특히 당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붉은 벽돌이 아니라, 회색 벽돌로 지어진 것이 특징이다.

1908년 배유지 선교사 임시사택에서 시작된 광주여학교는 이 건물의 이름을 따서 수피아 여학교로 이름이 바뀌었다.

학생들은 3·1만세운동 때 박애순 선생의 지도로 수피아홀 지하에서 자정시간 이후 비밀리에 모여 태극기를 만들어 거사일에 나눠줬다.

이곳은 2005년 4월 15일 문화재청 등록문화재 제 158호로 지정됐다.



수피아홀(사진 왼쪽)은 수직의 긴 창이 반복적으로 배치됐다



위 네덜란드식 벽돌쌓기 구조를 볼 수 있다 아래 교장에서 버티본 수피아홀

양림동에서 아름다운 건축물 중 한 곳

녹음 사이로 난 길을 걷다 보면, 고풍스런 건물이 눈에 띈다. 정문의 오른쪽에 위치한 배유지 기념 예배당(커티스 메모리얼홀)이다. 이 건물은 1924년 미국 남장로회의 헌금으로 지어져 당시에는 선교사와 그 가족들의 예배당으로 이용됐다. 헌금의 상당 부분을 코넬리아 커티스 여사가 냈기 때문에 ‘코넬리아 커티스 기념 예배당(Cornelia Curtis Memorial Chapel)’이란 이름이 붙었다. 하지만 1955년 선교사들의 회의 중에 예배당 명칭을 수피아에 더욱 의미 있는 이름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그때 수피아 여학교를 설립한 배유지 선교사(Rov. Eugene Bell, 1868~1925)의 이름이 거론됐고, 이런 과정을 통해 ‘배유지 기념 예배당(Eugene Bell Memorial Chapel)’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커티스메모리얼홀’은 이 건물의 옛날 이름인 셈이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문화재청에 등록된 이름은 ‘커티스메모리얼홀’이다.

이 건물은 현재 ‘예수피아가교회’의 예배당으로 사용되고 있다. 건축 기법이 우수해 양림동에서 아름다운 건축물 중 한 곳으로 손꼽힌다. 전체적으로 중앙을 기점으로 대칭을 이루고, 곳곳에 원형 창과 첨두아치 형태의 창문을 조화롭게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이 건물은 정면에서 보면 2층이고 뒷면에서 보면 단층으로 보인다.

경사지를 이용한 평면계획, 적설을 고려한 급경사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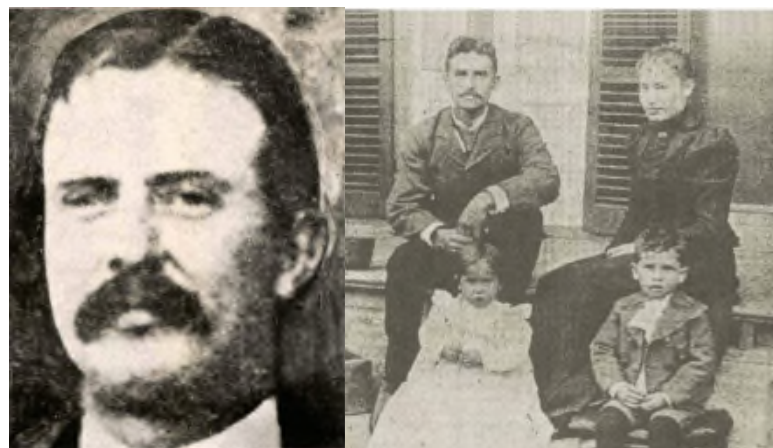


침두이지 형상의 침둔

붕, 주변 경관을 최대 이용한 배치, 검소하면서도 부족함이 없는 의장 등 규모는 작지만 장식적인 요소가 많다. 2005년 4월 15일 문화재청 등록문화재 제159호로 등록됐다. 학교법인 호남기독교원 소유이다.

유진 벨 목사는?

1868년 4월 미국 켄터키 주 스캇 스테이션에서 태어나 1895년 4월 서울에 도착, 1925년 9월 광주에서 숨을 거둘때 까지 나주, 목포, 광주에 각각 선교부를 세우고, 기독교 복음을 전파했다. 특히 남녀 학교를 세워 한국의 젊은이들이 배움에 눈을 뜨게 했고, 병원을 세우는데 크게 협력했다. 1897년 10월 1일 목포 개항 이후 1898년 3월부터 목포에서 선교를 시작해 양동교회를 세웠다. 소년, 소녀들을 데리고 시작한 공부가 후에 영흥학교와 정명학교로 발전했다. 1901년 4월 아내가 숨을 거뒀고, 1904년 5월 재혼해 광주에서 선교를 시작했다. 양림교회를 세우



좌 배유지 목사 우 배유지 목사 가족의 단문환 한때(1901년경)

고, 송일학교와 수피아학교를 시작하는 등 광주의 희망이 됐다.

그러나 1919년 서울에서 광주까지 선교용 차를 몰고 내려오다가 수원 인근 병점 건널목에서 기차와 충돌해 부인과 또 다른 목사Paul S. Crane가 즉사한다. 이렇게 아픔을 겪는 사이에도 유진 벨 목사는 광주, 목포, 해남, 진도, 영광, 무안, 함평, 나주, 장성, 담양, 옥과, 구례 등에서 교회와 초등학교를 세운다. 그는 전라남도 전역에 걸쳐 희망의 빛으로 살다 1925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현재 호남신학대학교 교내에 있는 선교사 묘원에 잠들어 있다.

그의 딸 살랏은 군산에서 일하던 선교사 린튼과 결혼해 한국에서 50년간 교육선교 사업을 펼쳤다. 린튼의 후손들은 유진 벨 선교사의 뜻을 기념해 '유진 벨 재단'과 '북한을 위한 크리스찬 친구들'이란 모임을 만들고, 남북한을 넘나들며 북한의 결핵 퇴치를 위해 필요한 약품과 의료기구를 전달했다.



학생들의 바른 생활과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해...

중학교 본관 앞뜰에는 1976년 세워진 '참한학생탑'이 있다.

정신육 제12대 수피아여중 교장은 1972년 기독교 학교의 정신을 구현하고, 학생들의 바람직한 가치관 확립과 바른 생활 태도를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참한학생상'을 제정했다. 정 교장의 은퇴 이후에도 지금도 수피아여중에서는 '참한학생상'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참한학생상'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 1976년 5월 1일 수피아여자중·고등학교 교정 잔디밭에 '참한 학생탑'을 건립했다. 이 탑 하단 정면에는 김재훈 선생의 시가 새겨져 있다.

사랑의 빛살

우리들 / 마음 밭에 / 한 그루의 꽃을 심어 // 환하게 / 환하게 /
양심의 눈이 되고 // 타오르는 / 뜨거운 정 / 푸른 꿈을 자랑삼아
// 참하고 / 아름답이 / 가신스레 가꾸면 // 그 향기 / 사랑의 빛
살되어 / 온 누리를 밝히려라.

이 시를 쓴 김재훈 선생은 수피아 개교 60주년, 70주년, 80주년, 90주년, 100주년 때마다 기념사를 남겼다. 그가 남긴 기념시 〈잔디밭에서〉, 〈큰 빛을 향하여〉, 〈열매 하나 위하여〉, 〈수피아의 참빛〉, 〈영광을 꽃피운 빛의 역사〉는 《수피아 100년사》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피아 인물 인터뷰

문영순
제16대 수피아여중 교장
제18대 수피아총동창회장

수피아여중 고생들은 졸업 이후에도 끈끈한 유대관계를 갖고 지낸다. 이는 동기간뿐 아니라 교사와 학생 간에도 통용된다. 여럿이 만나 학창시절로 돌아간 듯 옛 추억을 곱씹으며 이야기도 나누고, 또 함께 훌쩍 여행을 떠나기도 한다.

양림스토리탐험대는 1963년, 로댐나무를 심었던 여학생들의 이야기가 무척 궁금했다. 당시 1학년 B반 대표였던 이영현 선생(제10대 수피아총동창회장)과, 교사였던 문영순 선생(제16대 수피아여중 교장 제8대 수피아총동창회장)을 만났다.

문영순(이하 문) 수피아에서 평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수피아를 나와 대학을 졸업한 후 다시 수피아로 갔으니까요. 저는 1945년에 입학해서 51년에 졸업했어요. 재학 당시 우리 학년이 8명이었는데, 학교 상황이 너무 어려워지자 유화례 교장선생님이 학생들을 다 다른 학교로 보내려고 했었습니다. 저희는 끝까지 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빌었지요. 그래서 바로 아래 학년 없이 저희는 학교를 다녔어요. 당시 피난민들을 합쳐, 총 열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이영현(이하 이) 돌이켜보면, 학교에 다녔을 때가 정말 행복했었습니다. 특히 우리 학년은 대학교도 많이 진학하고, 유학 가는 친구들



이영현
제10대 수피아총동창회장

“돌아보면 학창시절이
가장 행복했죠”

도 정말 많았어요. 우리 동기들 중엔 해외 유학과 박사들이 수도룩한데, 지금까지도 유례없는 일이 났습니다.

문 수피아 출신들은 정말 다 성공했어요. 학교 안에 흐르는 기독교 정신이 몸에 배어 있었던 걸까요. 특히 우리 학생들은 봉사정신이 남달랐던 걸로 유명했습니다.

이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한 반에 60~70명이었어요. A반, B반, C반 통틀어 한 180명쯤 됐겠네요. 로댐나무는 C반 조은 학생과 한덕선 선생님께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는 모든 학급이 공유하게 됐어요. 한 선생님은 특히 우리 학년에 심혈을 기울였던 걸로 기억됩니다. 승일학교에서 수피아로 옮기신 뒤에 저희 학년을 맡으셨지요. 그래서 뭔가 더 열정이 넘치셨던 것 같습니다. C반의 종례시간은 우리 반인 B반과 A반에 비해 특히 길었어요.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은 이수복 선생님이셨는데, 금방 종례가 끝나고 말았지요. 우리 반 종례가 끝나면 C반으로 달려가 또 종례를 같이 들었습니다.

이수복 선생님에 관한 일화도 있어요. 이 선생님이 오시는 작문 시간이었습니다. 동기 중에 현재 수필가로 활동 중인 정화신씨와 내가 한 반이었는데, 이수복 선생님이 꼭 그 친구만 칭찬했었습니다. 제가 반장인데 말이지, 한 번도 일어나 시를 읊어보란 말씀이 없었

어요, 오기가 생겨 주말 동안 심혈을 기울여 작품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엔 일어나 읽어보라 하시겠지 했어요, 결국 친구들 앞에서 시를 읊긴 했는데, 이 선생님은 “너는 나중에 논문이나 써라”하시고 말았어요, 돌이켜 보니 저는 (박사공부를 하며) 계속 논문만 쓰고 있었네요.

돌아보면 그때만큼 행복했던 시절이 없었습니다. 선생님도, 친구들도 정말 좋았어요. 63년에 나무를 심고, 20년 후에, 또 20년 후에 다시 만났지요. 2003년엔 40명 정도 모였었어요, 로템나무 덕분에요. 그때 서울 살던 친구들은 차를 대절해서 광주에 내려왔었습니다.

문 저도 지금까지 동기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9명씩 모였다가 지금은 6명이 남았네요. 청년·중년층들이 저희를 보면서 ‘우리도 나중에 저렇게 오래도록 만나자’고 하면 기분이 웬지 모르게 뿌듯해집니다.

전 오래도록 양림동에서 살았어요. 예전에 이수복 선생님이 살던 집이 이곳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사모님도 돌아가시고, 흔적을 찾을 수 없어 안타깝습니다. 또 옛날엔 우리 학교 아까시나무 향기가 정말 좋았었는데, 지금은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아쉽습니다.

이 저희 동기들은 18명 정도 매달 한번씩 모임을 갖고 있어요, 함께 여행도 다닙니다. 수피아 출신들은 다 잘됐어요, 동기 중에 박사들도 많지만, 사회에 봉사하고 사는 이들도 정말 많습니다. 이제 다 수피아 정신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전할 때면 발전할 수 있도록 신앙 속에서 용기가 샘솟아요.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에도 엄청 힘들었지만, 신앙의 힘으로 버텼어요.

동기들을 보면 주어진 일터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아주 인상 깊어요. 수피아의 행복한 교육이 행복한 인간을 만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행복하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는 선생님들께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문 영현이를 비롯해서 이렇게 꾸준히 감사하다고 말하는 제자들이, 수십년 된 제자들이 많아요. 복받은 거지요, 모교에 대한 졸업생들의 사랑은 정말 남달라요. 수피아가 1945년에 복교했는데, 졸업생들이 학교에 모이면 울면서 기도했어요, 학교를 위해서. 그 중심에 조아라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 학생수가 많지 않아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가족같이 생활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학교에선 공부도 하고, 음악도 듣고, 또 사랑·나눔·우애에 대해 많이 배웠어요. 특히 수피아는 합창대회에만 나가면 1등상을 휩쓸곤 했던 기억도 새삼 나네요.

아, 동기생 중에 영문학을 전공하고, 시인으로 활동하는 조영실씨가 있는데,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꾸준히 국내 작가의 작품을 영역해서 미국에서 출판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하루 또 하루》로 유명한 김광규 시인의 시집을 번역해 선보였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영실이가 앞으로도 한국 시인들의 작품을 미국에서 계속 꾸준히 소개할 것 이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문 우리학교에서 예술인들도 참 많이 나왔습니다. 음악 등 특별 교육이 유별났던 것도 한 요인이겠네요.

이 채플시간에는 외부 인사들의 특별 강연 같은 것도 있었어요, 모시기 힘든, 유명인사들의 말씀을 눈앞에서 들으면서 저희들은 꿈을 갖고, 또 사회에 봉사하며 책임감을 갖고 살겠다는 결심을 하곤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인가’ 고민하고, 연사들의 삶처럼 살아야겠다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요즘 교육을 보면 아쉬워요. 학생들 탓이 아니라 사회 탓이죠. 요즘 교육은 공부만 있지 인간 교육이 없어요. 조금 여유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창시절처럼, 우리 후배들도 학교 안에서 공부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우정, 인생관, 봉사정신 등을 기르길 바랍니다.

02

양림동산 길을 걷다



햇볕이 따뜻한 양림동산은 나무들의 보고'

양림동산 일대는 햇볕이 유독 따스하다. 또 다양한 수종의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어 산책하기에 더없이 좋다. 꽃잔치도 수려하다. 봄에는 수선화가, 가을에는 선교사 묘원 부근을 중심으로 꽃무릇이 만개한다. 선교사들은 특히 꽃무릇을 '부활의 꽃'이라 불렀다.

호남신학대학 운동장 옆으로 난 탐방로를 따라 양림동산을 오르면, 상수리, 참나무, 단풍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수령이 100여년 된 나무들이다. 단풍나무 수액과 나무열매를 좋아하는 곤충과 새들도 많다. 양림동산이 광주의 중심가에 자리잡고 있지만, 도심에서 쉽게 들을 수 없는 새소리를 이곳에서 들을 수 있는 것도 '나무' 덕분이다.

특히 양림동산에서는 은단풍, 폐간, 흑호도 등 1900년초 남장로교 선교사에 의해 심어진 나무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다. 해발 108m의 낮은 뒷동산인 이곳은 조선시대엔 화살대를 납품한 관죽전이었다. 돌림병에 걸린 어린이들을 버리는 풍장터이기도 했다. 유진벨 선교사는 이 산에 나무를 심고 산자락에 교회, 학교, 병원을 세워 광주에 근대문화를 전하는 '생명의 산'으로 바꿨다.

이곳에 터를 잡은 선교사들은 나무와 자연 환경을 통해 향수를 달래고 싶었다. 광주천 뱃길을 이용해 왕래가 용이하다는 점도 양림동산의 장점이었다. 향간에는 폐간이나 흑호도 등의 열





매년 양질의 영양분이 풍부해 선교사들 스스로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 이 나무들을 들여왔던 이야기도 전해진다.

선교사들이 들여온 나무들을 소개한다.

은단풍나무는 잎의 뒷면에 은색 털이 있어 은단풍銀毛楓이란 이름이 붙었다. 잎이 바람에 흔들거리면 빛에 반사돼 은빛으로 반짝거리는 듯한 느낌을 준다. 북미 원산으로 낙엽활엽수 교목이며 나무높이 40m, 지름 1m이상까지 자란다. 1930년대에는 이 나무 씨앗 한가마니의 가격이 당시 피아노 한대 값이었다고 한다.

수액이 많아 하늘소 종류와 장수풍뎡이 애벌레들이 주로 서식하는 바람에 연한 목질부와 심재부가 빠르게 썩는다. 돌풍이나 태풍에 쉽게 부러지는 단점이 있어 오래된 은단풍나무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페칸은 미국에서 도입해 식재한 나무로 그 열매는 지구상에서 가장 영양가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덕분에 미공군 조종사들의 비상식량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열매는 길이가 2~3cm정도로써 끝이 뾰족하며 표면은 갈색으로 매끄럽다. 각과殼로서 속에 얇은 껍질로 싸여 있는 열매는 고급빵, 과자, 아이스크림, 각종요리용, 식용기름과 유지공업에 널리 쓰인다. 목재는 무늬가 아름다워 장식재나 가구재로 쓰이며 피아노의 울림판으로도 쓰인다.

흑호도는 북아메리카가 주산지로 검은호도나무라고도 한다. 값이 비싸고 색채와 무늬 및 재질의 특성이 뛰어나 미국에서 최고급 가구재와 건축자재로 사용되고 있다. 예부터 미국의 인디언들에게 식량생산용으로 중요시되어 왔으며 고급과자와 아이스크림용으로 사용됐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흑호도열매를 황제의 열매라고 불렀으며 내장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흑호도열매의 껍질을 사용했다고 한다.

1 수피아 교목인 은단풍나무 2 윈스브로우를 열 페칸나무
3 우월산 선교사 사택 앞 흑호도나무 4 페칸열매 5 흑호도열매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는 성탄트리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문양이 있다. 빨간 열매와 그 옆으로 뾰족뾰족한 잎이 서너 개 난 모습의 문양이다. 바로 ‘호랑가시나무’를 본뜬 것이다. 서양에서는 날카롭고 뾰족한 가시가 있는 단단한 잎과 붉은 열매를 지닌 이 나무를 크리스마스트리로 주로 썼다고 한다.

생긴 것은 다소 거친 데 비해 꽃말은 암전하다. ‘가정의 행복Blue Princess Holly’. 반전의 매력을 지닌 나무라고나 할까. 외국에서는 종류에 따라 Blue Princess Holly, English Holly 라고도 부른다.

수피아여고 뒤편, 양림산 남쪽 기슭의 교회 선교부 후원에는 수령이 400년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호랑가시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나무의 높이는 6m이며, 둘레가 1.15m로 호랑가시나무로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커다란 나무이다. 원래 야생식물로 자란 것을 관상용으로 보호해 왔으며, 주변에는 아직 어린 호랑가시나무들이 자생하고 있다.

한겨울, 양림동은 이 나무 덕분에 특별해진다. 눈이 내리면 짙푸른 잎과 빨간 열매가 흰 눈과 극명한 색채 대비를 띠며 눈길을 사로잡는다.

성탄 트리로도 사용돼서인지, 일명 ‘예수나무’로도 불린다. 잎가에 다섯 개의 가시모양 톱니가 있어 호랑이의 등을 긁는데 쓸 만하다고 해서 호랑가시나무, 혹은 호랑이등굣



나무란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시 지정 기념물 제17호다. ‘Holly’는 선교사들이 양림동 지역에 심었던 호랑가시나무를 지칭하는 말이다. 인근에는 이 이름을 딴 카페도 있다.

호랑가시나무로서 문화재로 지정된 예는 다른 지역에선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양림동 호랑가시나무가 앞으로도 꼭 소중하게 관리돼야 할 이유다.



혈혈단신으로 고아·여성에 헌신하다 양림에 묻히다

“(내가)호흡만 거두면 사체를 해부해 연구 자료로 삼으시오.”

눈을 감는 순간까지 사랑과 나눔을 실천한 성녀, 서서평 선교사의 유언이다. 양림동 남장로교 선교회 사무실이일학교 뜰 옆에는 조그마한 비석이 있었다. 1912년 한국에 나왔다가, 1934년 향년 54세를 일기로 한국 땅에 뼈를 묻은 서서평 선교사를 기념하는 비석이다. 지금은 전주로 옮겨지고 없다.

1980년 독일에서 태어난 서서평은 미국으로 건너가 간호학을 공부했다. 32세 때, 미 남장로교 해외선교부가 파견하는 간호선교사로 선발돼 한국에 왔다. 전주 예수병원,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이어 광주 제중원에서 간호사로 봉사했다.

광주에 온 그녀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말과 풍습을 익히며 이름도 한국식으로 고쳐 지었다. 원래 성격이 조금했기 때문에 매사에 서서(徐徐)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성을 서(徐)씨로 붙였다고 한다. 두 번째 자는 모난 성격을 평평하게 한다는 뜻에서 평평할 평(平)자를 붙여 서서평이라 했는데, 이는 본 이름인 웨핑의 발음을 살린 것이기도 했다.

뒤에 알려진 바로는, 이 이름을 짓는데 최홍중 목사의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그녀는 동갑내기면서 생일이 빠른 최 목사를 오빠처럼 여겼으며, 매사 그와 의논해서 일을 처리했다. 특히 최



목사가 설립한 나환자 수용소를 틈나는 대로 찾아가 환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치료에 도움을 줬다.

1922년, 불우여성을 위한 간이학교인 이일학교를 설립했다. 조력자인 박해라 전도사와 조아라 여사가 교사로 봉사했다. 서서평 선교사는 가난한 학생들의 자활력을 기르기 위해 명주, 모시, 마포, 무명베 등의 천에다 자수를 놓아 책상보, 손수건 등의 수예품을 만들게 했다. 이 물건을 서로득 장로의 부인 주선으로 미국에 보내어 이일학교 학생들의 학비로 사용했다.

또 양림동에 뽕밭을 만들고 잠실을 뒤 양잠, 제사, 직포 기술을 보급했다. 선교사의 바느질 일감까지도 학생들에게 맡겨 배우고 일하는 즐거움 속에서 학생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일학교는 1930년대 말 신사참배에 반대해 폐쇄됐다가, 해방 후 복교됐으나 전주로 이전, 현 한일장신대의 전신이었다.

서서평은 특히 자신의 생활비까지 극도로 아껴 한국의 고아들과 가난한 여성을 도운 것으로도 유명하다. 봉급의 반을 교회에 바치고, 나머지 반은 장학금과 구제비로 쓰고, 그 나머지 조차도 남을 위해 쓸 정도였다. 1년에 신발 한 켤레로 견뎌냈으며, 그것도 길다란 남자 신을 신고 다녔다고 한다. 김정통치마에 남자용 고무신을 신고 금주·금연운동, 인신매매 반대, 공장제도 폐지 운동을 벌였다.

제중병원 간호부장으로 지내는 동안에 특별히 나환자와 결인들을 돌봤으며, 거리에서 나병 환자나 거지들을 만나면 집에까지 데려와 목욕을 시키고 밥을 먹여 자기 옷을 입혀 보냈다. 그 때문에 평생 옷 두벌을 가진 적이 없었다고 전해진다.

원인 모를 병으로 몇 달을 신음하다가 임종할 때엔 자신의 시체를 해부하는 데 쓰라고 유언했다. 장례식은 광주 최초 사회장으로 치러졌으며 당시 동아일보는 '자선과 교육사업에 일생을 바친 빈민의 어머니 서서평양 서거'라는 제목과 '재생한 예수'라는 부제로 4단 톱기사를 내며 그녀의 죽음을 대서특필했다.

별세 후에 광에는 밀가루 두 홑만이 남아 있었다고 전해진다.

서서평은 지금 양림동산 선교사 묘원에 묻혀 있다.



좌오방 최홍중 목사 우 미감아 이들과 함께한 오방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선교사들, 그리고 사택

우월순 선교사 사택

우월순 선교사 사택은 광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서양식 주택이다. 양림동 기슭에 동향으로 2층 규모로 세워진 회색 벽돌 건물이다. 구조를 보면 55mm 두께의 회색 벽돌을 네덜란드 식으로 쌓았으며, 내부는 회반죽으로 마감하고, 고막이 부분은 화강석을 쌓아 처리했다.

제중원(현 광주기독병원) 2대 원장을 역임한 우월순(Robert Manton Wilson, 1880~1963) 선교사는 장애인과 고아들을 위한 지역 최초의 고아원 사역을 시작으로 한센병 치유에 앞장섰다. 현재의 사택은 1910년 건축된 것으로 추정되며, 1921년 증축됐다.

우월순 선교사는 1908년 2월에 광주에 도착, 진료소를 손질해 의료 선교 활동에 착수했다. 당시 천행으로 여겨지던 한센병 환자들을 최홍중, 서서평 등과 함께 가족처럼 보살피며 자활 기반을 마련해줬다. 또한 이 건물에서 전쟁고아 보육이 시작돼 사회복지와도 관련이 깊다.

사택은 1989년 3월 20일 광주기념물 제15호로 지정됐다. 현관이 동향인 점은 한국의 전통적 방위관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사택 주변에는 100여년 전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옮겨와 심었다는 아름드리 pekan나무와 흑호도나무가 있는데 열매는 구황식물의 기능을 했다.

사택을 지키고 있던 은단풍나무는 우월순 선교사가 고향에서 종자를 가져와 심은 것이라 전해진다. 이 은단풍나무는 아쉽게도 낙뢰



위 우월순 선교사 사택 아래 유수만 선교사 사택

로 인해 고사돼 지금은 몸통만 남은 상태이다.

원요한 선교사 사택

양림산 기슭 우월순 선교사 사택 아래쪽 고즈넉한 곳에 원요한 선교사 사택이 있다. 유수만 선교사 사택과 나란히 있는 붉은 벽돌 건물이다. 선교사가 사용한 이후 호남신학대 학생들의 기숙사로도 활용됐다가 수년 동안 방치됐다. 호신대는 1975년 9월 양림동으로 이전했다. 2014년 3월 '아트주'가 호남신학대로부터 임대해 사택 내부를 리모델링하고 다원형 레지던시 창작 공간인 '호랑가시나무 창작소'와 게스트하우스로 변신시켰다. 가까이 호랑가시나무 군락이 있고 예술가로서 영감을 받기에 충분한 만큼 고풍스러운 곳이다.

원요한 선교사의 조부는 언더우드 목사다.

언더우드 목사(Horace G. Underwood, 원두우는 고종황제가 사석에서 그를 "형"이라고 불렀을 만큼 고종황제의 신뢰를 받았다고 한다. 그는 새문안 교회를 설립했으며 연희전문학교를 세우고 초대학장으로 써 대학교육에 이바지했다. 아들 언더우드 2세로 원한경(1890~1951)(연희전문학교 3대 교장), 언더우드 3세로 원일한(1919~2004)(연세대 교수), 원제한, 원요한(1919~1994, J.T. Underwood, 원득한)이 있다. 원요한 선교사는 청주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만년에 광주 호남신학교에서 교육선교사로 일하며 정년 은퇴까지 선교활동을 마쳤다.

유수만 선교사 사택

원요한 선교사 사택과 나란히 붉은 벽돌의 2층집이 있다. 유수만 선교사 사택이다. 붉은 벽을 타고 오르는 담쟁이덩굴이 인상적이다.

"한국 광주에서 일할 치과의사를 구합니다."

당시 광주기독병원 치과에는 미국 남장로교에서 파송한 켈름 리비



위 낙로토 고사돼 몸통만 남은 우월순 선교사 사택의 은둔나무 아래 원요한 선교사 사택



피터슨 목사 사택

박사 J. Kellum Lewis가 1956년에 개설한 치과진료소가 있다. 1959년 리비 박사가 한국을 떠나면서, 치과는 문을 닫게 됐고, 그는 미국에 돌아가 남장로교 잡지에 치과 의사 구인 광고를 냈다. 유수만¹⁾ Dr. Dick H. Nieusma 선교사는 이 광고를 보고 한국에 선교사로 자원하게 된다.

유수만 선교사는 미국 장로교에서 파송한 선교사로, 1961년 서울에 와 연세대 한국어학당에서 한국어를 공부했다. 1963년 광주로 내려와 광주기독병원 치과 과장으로 부임, 1986년까지 치과의료 선교사로 활동했다.

1965년 치과 전공의 수련 과정을 개설해 본격적인 제자 양성과 신앙 교육,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 병원 식구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매월 한두차례 무의촌 진료 봉사를 했는데 이때 뽑은 썩은 치아가 수만개에

달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유수만 선교사는 호남 지방 최초의 치과대학인 조선대 치과대학 설립과 광주보건대학 치위생과 개설, 한국 최초의 언어 병리학 프로그램 참여 및 치과용 장비와 기구들의 개발·제작을 통해 한국 치과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외국인을 위한 한글 사전을 손수 제작할 정도로 한국 사랑이 남달랐다고 한다.

피터슨 목사 사택

1980년 당시 양림동 사람들은 불의에 항거하는 광주민중항쟁의 증언에 깊이 참여했다. 이 사택은 1980년 5월 피터슨 목사가 광주 상공의 헬기 기총소사를 목격한 곳으로, 그는 당시 신군부의 폭력을 국내외에 널리 알렸다.

증언록은 외국선교사의 현장기록이라는 점에서 5·18민중항쟁의 진상을 밝히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이 증언록에서 “당시 계엄군이 무방비 상태의 시민과 학생을 무차별 공격해 832명을 사망케 했다”고 밝힌 후 “5월 21일 오후 3시 30분에 계엄군 헬리콥터 3~4대가 시민들에게 총기를 난사해 이날 하루 광주기독병원에서만도 사망자 14명과 부상자 1백여명이 목격됐다”고 증언했다.

양림동은 1970년대 호남 민주 인권 운동의 주요 보루였기에 5·18 당시 신군부에 의한 수배 및 수감된 사람들이 지역민 중에 여럿 있었다. 양림동 사람들의 헌혈, 피해자 구제 헌금, 장기간에 걸친 기도, 불의에 항거하는 지속적인 설교, 학살에 대한 청문회 증언들과 선교사들을 통한 해외 증언들도 함께 이어졌다.

이후에도 신군부의 집요한 압력으로 교회 지도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국 땅에서 나눔·배려를 실천한 이들이 잠들어 있는 곳

호남신학대 교내의 양림동산 언덕에는 낮은 이국땅에서 희생과 나눔, 사랑을 실천한 이들이 고이 잠들어 있다. 읍성 밖 버려진 풍장 터 언덕은 1904년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돌림병으로 죽은 아이들을 버린 곳이었다. 1904년부터 선교사 사택, 교회, 학교, 병원이 들어서면서 나무가 심어졌고, 이후 선교사들도 이곳에 묻히게 됐다.

현재 이곳은 총 45기 중 전주 선교사 묘 22기와 한국인 유우선 1기를 제외하고 순천, 목포, 광주에서 사역한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의 묘 22기가 모여 있다. 국내의 대표적인 선교사 묘원 중 한 곳이다.

선교사들은 유진 벨, 오웬, 크레인이라는 본래의 성과 이름 대신 배유지, 오기원, 구레인이라는 한국식 이름으로 불리기를 더 좋아했다. 가난한 이들, 병든이, 배우지 못한 이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해 나눠주고, 싸매주고, 베풀어주고 일생을 소진한 그들의 이름 앞에는 '한국인의 친구'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다.

선교사들은 일제 강점기에 복음의 전파와 실천, 빈민 구제 공동체와 한센병 치유 공동체, 결핵 치유 공동체 등의 사랑을 몸소 보여줬다. 호남의 교회 및 지역 인재 양성, 대대적인 광주·전남 농촌 살리기 운동을 위해 헌신했



으며, 한글 보급을 비롯한 각종 계몽 운동, 독립운동, 5·18 증언 등에도 참여했다.

비록 그들의 몸은 흙 속에 묻혀 있지만, 양림동산 아래에 펼쳐진 풍경들은 그들의 정신과 영혼이 온전히 살아 그토록 사랑했던 광주 땅에 어떤 기적들을 일으켰는지 입증해준다.



“이 추모비는 1980년 광주 5·18민중항쟁 당시 본교 3학년에 재학중이시던 73학번故 문용동 전도사님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진 비입니다.”

“내가 죽으면 꼭 태극기로 덮어주세요.”

호남신학대학교 선교사묘원에 오르기 전, 등나무 옆에 문용동 전도사 추모비가 있다. 문용동 전도사는 1980년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역사적 사건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양림동에서는 이 추모비에 대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1980년 5월 18일 교회를 다녀오던 길에 공수부대원에 게 맞고 있는 노인을 돕다가 함께 폭행을 당하고 만다. 다음날부터 그는 매일 시위에 참여했다. 22일에는 도청에서 결성된 수습대책위원회에 참여, 지하실의 무기관리 임무를 맡았다.

“이 엄청난 피의 대가는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가. 도청 앞 분수대 위의 시체 32구. 남녀노소 불문 무차별 사격을 가한 그네들. 아니 그들에게 무자비하고 잔악한 명령을 내린 장본인, 역사의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리라.”

당시 그의 일기에 적힌 글이다.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문 전도사는 무기고 안에 있던 수만발의 탄약과 3천여 상자의 다이내마이트가 잘못 터지면 수만명의 목숨을 앗아갈 것이라고 판단하고, 뇌관 제거에 나섰다. 그 후로도 “내가 죽으면 태극기로 덮어 달라”는 말과 함께 줄곧 현장을 지켰다. 안타깝게도 마지막 순간에 투항하려다 계엄군의 조준 사격에 생을 마감했다.

언덕·나무·까마귀... 양림에 살며 양림을 노래하다

호남신학대학교 안에 다형^{차호} 김현승^{1913~1975}의 시비가 있다. 햇불과 펜촉은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고결한 정신을 유지했던 그의 태도와 시 세계를 상징하는 듯하다.

‘고독의 시인’ 김현승의 시혼^{詩魂}은 문향^{文香}이 넘실대는 광주 양림동에 남아있다. 그는 어린시절 목사인 아버지를 따라 광주로 와 양림동에 터를 잡은 이후 이곳에서 문학적 재능을 꽃피웠다. 광주에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광주를 ‘고향’으로 부를 만큼 시인은 양림동에 애착을 가졌다.

청소년 시절부터 문학적 재능을 십분 발휘한 그였지만 일제강점기 말에는 붓을 꺾고 침묵을 지키다가 8·15광복 후 다시 작품을 발표하면서 시인으로 활동했다. 조선대학교 문리대 교수로 있을 때는 지역 문인들과 함께 문예지를 발간하는 등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했다.

김현승은 양림동산에 앉아 무등산을 바라보며 사색하기를 즐겼다고 한다. 다형시비 일대와 사직공원 등 양림산에서 보는 무등산 일출은 예부터 광주의 주요 경관의 하나로 꼽힌다. 다형이 사랑했던 양림동 곳곳에는 그의 발자취가 곳곳이 남아있다.



그의 권유로 시인 서정주도 광주로 와 사직동과 양림동 경계 부근에 터를 잡고 살았다. 서정주 시인은 양림동에서 무등산을 바라보며 시 〈무등을 보며〉를 지었고, 김현승 시인은 무등산에서 광주시가지를 내려다보며 〈산줄기에 올라-광주에 바치는 노래〉를 썼다.

김현승 시인의 시에는 특히 언덕, 나무, 까마귀, 이발소, 책방 등 양림마을의 경관이 자주 등장한다. 실제로 당시 언덕마을 양림동에는 다양한 수종으로 구성된 울창한 숲이 우거져 있었고, 많은 까마귀들이 서식했다.

다형에게 추천, 사사받아 한국 문단에 나온 여러 문인들 외에도 이수복, 서정주, 오화룡, 김재훈, 김준태, 박재구를 비롯한 많은 시인들이 자취를 남겼기에 양림동은 '시인의 마을'이라고도 불린다. 특히 이들 시인들은 양림산을 '녹색의 장원'이라 부르며 양림동에 남다른 애착을 보여주기도 했다.





광주 최초의 놀이터에 등지를 뜬 ‘책 놀이터’

지금은 온 세대가 책을 읽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인 사직도서관은 40여년 전만 해도 광주 최초의 신식 어린이 놀이터였다.

놀이터가 높은 언덕에 있어서 기구를 타려면 꽤 많은 계단을 올라가야 했던 기억이 난다. 친구들과 ‘가위 바위 보’ 게임으로 ‘보’는 10칸, ‘가위’는 5칸, ‘바위’는 1칸씩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가는 놀이에 시간가는 줄 모르고 놀았다.

시소, 그네, 정글짐, 철봉, 미끄럼틀, 회전지구본, 구름사다리, 뽕뽕이 등 넓은 운동장에 다양한 놀이기구로 우리를 놀이로 유혹하기에 충분했다.

언제부턴가 놀이기구가 하나 둘씩 철거되자 아쉬워하는 친구들이 많았다. ‘놀이터가 나간 자리에 도서관이 생긴다니…….’ 책이 싫었던 우리는 그래서 더 도서관과 멀어졌는지도 모른다.

광주 남구 사직도서관은 지난 1989년 4월 문을 열었다. 사직도서관은 1981년 12월 무등도서관 개관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광주시립도서관이다.

양림동이 ‘시인의 마을’인 만큼, 이곳에 자리잡은 사직도서관은 사문학특화자료를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다. 시문학 일반도서 6천 600여권과 다채로운 문학월간지를 만나볼 수 있다.



1904년, 배유지 선교사 사택에서의 첫 예배를 기념하는 비

사직도서관 앞에는 기념비가 하나 있다. 기념비가 세워진 곳은 1904년 배유지 선교사를 비롯한 미국 남장로교 광주선교부가 주민들과 함께 첫 예배를 드린 배유지 선교사임시사택 터다.

임시사택은 광주의 첫 복음, 근대교육, 근대의료의 출발점이 됐다. 근대 문화의 새로운 정신인 자유, 평등, 인권, 박애의 산실이었고, 생명 존중·희생·나눔의 공동체 삶을 실천하는 현장이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대한예수교장로회는 지난 1982년 기념비를 건립했다.

선교기념비는 자연석 화강암으로, 음각으로 돼 있으며 길이 175cm, 폭 85cm, 두께 50cm 크기로 지어졌다. 비문 내용은 국문과 영문으로 소개돼 있다.

“이 곳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1904년 12월 25일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 배유지 목사가 광주에서 처음 예배드린 곳으로 그 거룩한 뜻을 기리어 여기 돌의 하나를 세우니라.”

- 1982. 12. 6 대한예수교장로회 전남노회 신가 세움

Pause(파우제)

광주민속자료 제1호인 이장우 가옥 부근에 위치한 파우제는 북층으로 꾸며져 2층에서 1층을 바라볼수 있게 디자인 돼 있다. 본래 가게 명은 영어로 Pause인데 독일말로 '파우제' 라고 명명하게 됐다고 한다.



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334 전화 062-652-1101

Holly Story(홀리스토리)

양림동 마을기업1호 Holly Story 양림동 주민들이 운영하는 마을기업으로 커피와 쿠키 등 선교사들이 전파한 음식 레시피를 복원해 판매하는 카페다. 주민 30명이 출자하고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돼 남구에서 3,000만원을 지원했다. 홀리스토리 카페는 향긋한 커피와 맛있는 쿠키, 빵 등을 판매하며 양림동 근대역사문화 홍보를 위한 사랑방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우월순길 43 전화 062-676-4770

LOIS COFFEE(로이스 커피)

광주에서 보기 힘든 핸드드립 카페로 유명하다. 직접 로스팅한 원두도 판매하고 있다. 가족이 함께 가게를 운영해서인지 전체적으로 평온하고, 아늑한 느낌이 물씬 풍기는 곳이다.



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66-43 전화 062-672-7935

AMSON COFFEE(어비슨 커피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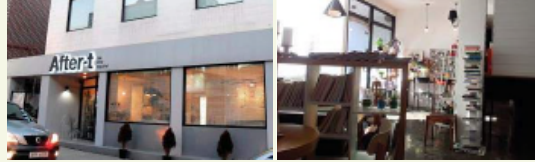
어비슨카페는 양림교회에서 G.W Avison이란 선교사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기념관2층에 위치한다.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곳이라 그런지가격이 다른 곳보다 저렴하다. 종교를 떠나 맛있는 커피를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좋다.



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93-24 전화 062-675-3232

AFTER-T(애프터티)

1층의 카페 공간은 예술가의 아틀리에 같은 느낌으로 테이블별 각각 다른 분위기와 컨셉을 갖고 있어 색다른 재미를 준다. 2층은 Party, Catering&Propose zone 등으로 이용가능하다고 하니 참고 바란다. 오후 9시부터는 CandleTime이 진행된다.



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369 전화 062-676-3690, 36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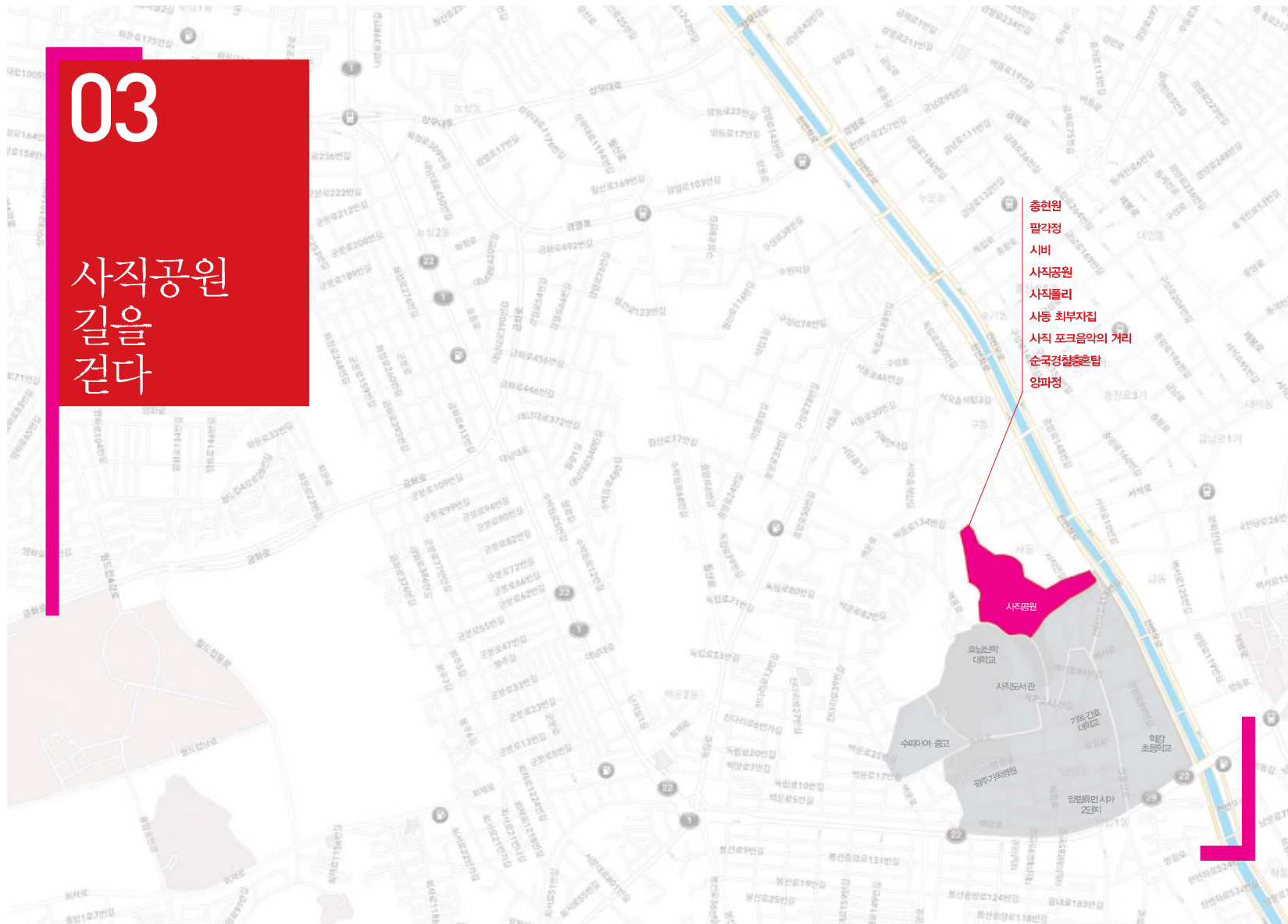
다형 다방

이곳은 유스컴퍼니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인카페로 양림동에 오래 거주했던 다형 김현승 시인을 기념한 공간이다. 2층 다락방은 관객들의 하룻밤 안식처가 되기도 한다. 또 양림동 중앙에 위치해 양림동-둘레길의 시작점이자 종착점이 되기도 한다. 재밌게도 무인카페라서 그런지, 커피포트에 물을 끓여 타먹을 수 있는 장소가 마련돼 있다. 가격은 한잔에 500원! 참사나마 양림동의 역사를 알 수 있고, 커피를 좋아했던 다형 김현승 시인의 작품들도 볼 수 있으니 일석이조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03

사직공원 길을 걷다





한국전쟁 고아들의 집

“아주 작은 갓난아이들을 위한 집을 시작하고 싶어요. 조금 큰 아이들을 위한 교사원들은 많지만, 그 어느 곳도 부모를 잃거나 버려진 아이들은 떠맡고 싶어 하지 않아요. 혹시 선교회에서는 제게 선교부의 비어 있는 집에서 이 일들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순이 선생은 갓난아이 45명의 세례식에서 그 아이들의 부모가 될 것을 맹세했다.

충현원은 1949년 우월순 선교사 사택에서 출발한 선교 사회복지 기관으로 한국전쟁 직후 몇백이 고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박순이(1921~1995) 선생에 의해 시작됐다. 전쟁 후 고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12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충현영아원을 설립하며 1952년 지금의 자리로 동지를 옮겼다.

전쟁고아들은 이곳에서 힘겨운 시간을 이겨냈다. 부모를 잃은 수많은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 남장로교 한국 선교회 광주지구 선교사 카밍스, 녹스, 카딩턴(고허번), 윌슨(우월순), 루트, 백영흠 목사가 가까이 후원에 동참했다.

아픈 역사를 뒤로 하고, 눈앞에 펼쳐진 현재의 충현원은 평화롭기만 하다. 사계절이 풍요롭기로 이름난 곳이다. 매화나무는 광주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 중 하나로 손꼽힌



충현원 송악



1 군목 러셀 블레이크스 대령 동상 2 JCI 청담수 3 박순이 선생 기묘

다. 송악은 건물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고 JCI(국제 청년회의소) 창립수는 충현원의 아이들처럼 JCI도 무럭무럭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심어졌다고 한다.

현재 남아있는 충현원 건물은 1953년에 지어졌으며 당시 고아들의 건강을 위해 채광과 통풍 등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였던 흔적도 엿볼 수 있다.

한국전쟁고아의 아버지 군목 러셀 블레이즈넬 대령 동상과 멕시코 조각가 세바스찬이 기증한 바운의 왕좌 조각이 세워져 있고 참전용사로부터 기증받은 평화의 바돌기 조각 원본도 설치돼 있다. 이 바돌기상은 해외로 입양됐던 한국전쟁 고아들이 세월이 지나 평화의 대사역할을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한다.

한 선교사의 집에서 시작된 이 복지기관은 1957년 충현원으로, 1979년 호남사회봉사회로 명칭이 바뀐 뒤 겨우 명맥이 이어지다가 오랜 시간 방치되다시피 했다.

지난 2008년부터 5년간의 공사 끝에 기념관, 체험관, 예절관, 보육관과 보수된 전시관이 지난 2012년 복원돼 전쟁의 참상을 알리는 역사체험의 교육장이자 전쟁고아를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충현원은 당시 젓먹이 고아뿐 아니라 양립동, 서동, 사동 일대와 순천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줬다고 한다.

충현원을 세운 박순이 선생과 관련된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박순이 선생과 어머니 박애신 여사는 수피아여학교 교정 안에 있는 녹스 선교사 사택 옆집에 살았다. 박순이 선생은

선교사들로부터 영어를 배워 녹스의 한국어 통역을 담당했고, 1960~1990년대에는 광주기독병원 치과의사인 유수만 선교사의 한글 선생님이기도 했다. 피아노도 곧잘 쳐서 오웬기념각에서 최초로 음악회가 열렸을 때 피아노 반주자로 나서기도 했다.

군목 러셀 블레이즈넬 대령동상

“내가 전쟁의 포화속에서 1천여 명의 생명을 구출한 것은 용기 있는 행동이 아니라 크리스천으로서 당연한 책임감이었다.”

한국 전쟁 참전용사미공군 군목 러셀 블레이즈넬^{1910~2004} 대령은 당시 길거리에 버려진 1,059명의 고아들을 구출한 한국전쟁 고아의 아버지다. 블레이즈넬 대령은 1950년 12월 20일 '어린이 비행기 수송작전'이란 이름으로 어린이들과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을 김포에서 제주 도까지 무사히 구출해냈다.



해외입양아들을 의미하는 평화의 바돌기 조각 원본

추억의 명소 팔각정, ‘사직전망타워’로 부활

사진 속의 팔각정은 당시, 광주에선 꽤 혁신적인 건물이었다. 저녁 무렵 팔각정에 오르면 시원한 바람과 광주시내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와서 부모님을 따라 자주 산책을 나온 기억이 생생하다. 지금은 너무 흔해빠진 비둘기는 그 당시에는 팔각정에만 있었던 명물로 기억난다.

팔각정은 1973년 완공됐는데, 1991년 사직공원 동물원이 우치공원으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시민들이 즐겨 찾던 휴식공간이었다.

2009년에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상징 조형물로 활용돼 팔각정 앞마당에 LED 불이 설치되기도 했으나 팔각정은 지난 40년 동안 사직공원을 지켜오다 2012년에 철거되고 말았다.

철거되기 전까지도 무등산 능선 너머로 일출을 감상하기 좋아 광주의 해돋이 명소로 유명했다.

팔각정은 사라진 지 2년만인 2014년 9월 25일 사직전망타워로 재탄생했다.

지하 1층, 지상 3층, 높이 34.7m 규모로, 지상 1~3층에는 매점, 문화카페, 전시공간, 옥상정원이 들어서었다.



‘시인의 마을’ 한걸음 내딛으며 시 한 편

양림동산과 사직공원, 광주공원에는 14기의 시비가 세워져 있다.

다형 김현승, 놀재 박상, 충무공 이순신, 백호 임제, 이수복, 하서 김인후, 용아 박용철, 영랑 김윤식, 이동주, 충장공 김덕령, 고산 윤선도, 금남군 정충신, 면앙정 송순, 박봉우 등의 작품을 새긴 시비를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시인의 마을’ 양림동과 인근 마을의 시비를 찾아 사를 읊조리며 이곳의 정취를 느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호남신학대학 내 다형 시비를 지나, 사직공원으로 발길을 돌린다. 박봉우 시비가 눈에 들어온다. 박봉우 시인은 1934년 광주에서 태어났다. 초등학교 4학년 작문시간에 쓴 ‘무궁화’라는 동요가 일본 아사히신문 주최 학생동요대회에서 1등을 하면서 유명해졌다.

일찍부터 남다른 글솜씨와 섬세한 감수성으로 이름을 날렸고 광주서중, 광주고를 나와 전남대 문리대 정치학과 재학 시절인 1956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시 〈휴전산〉이 당선돼 등단했다. 이후 신문사 기자로, 서울 특파원 재직 중 목포에 취재차 내려갔다 폭행을 당한 후유증으로 인해 정신장해를 일으켜 타계할 때까지 고생했다.

사직공원에는 그의 대표작 〈조선의 창호지〉를 새긴 시비가 세워져 있다. 전주에서 숨을 거둔 그는 ‘무등산 아래 묻히



1 박봉우 시비 2 송순 시비 3 윤선도 시비 4 충장공 김덕령 시비

고 싶다고 유언했을 정도로 귀향을 갈망했다. 그러나 지금은 전북 문인들의 도움으로 전주 효자공원에 묻혀 있다.

사직공원에 위치한 면양정 송순^{1483~1583}의 시비에는 시조 〈풍상이 엇겨진 날에〉가 새겨져 있다. 담양 출신인 그는 명종이 서리와 바람에 어렵게 핀 황국화를 하사하자, 고고한 절개를 지키려는 선비정신을 담아 이 시조를 올렸다. 변절을 잘 하는 이를 복사꽃과 오얏꽃으로 빗대고, 이를 황국화와 대조시켜 선비의 기개와 지조를 나타냈다.

정충신^{1576~1636}의 시호는 충무^{忠武}, 봉호는 금남^{錦南}이다. 광주 출신으로 나라를 지킨 금남군 정충신 장군을 기리기 위해 광주시가 그의 군호를 따서 '금남로'라 이름지었다. 임진왜란 때 권을 휘하에서 종군했으며 만포첨사로 국경을 수비했다. 이괄의 난 때는 황주, 서울 안현에서 싸워 이겨 공을 세웠다.

〈오우가〉는 윤선도^{1587~1671}가 불, 돌, 술, 대, 달 등을 다섯 빗으로 빚은 시조다. 좌절을 안겨준 현실에 무상함을 느끼면서 변하지 않는 자연 빗을 찬양했다. 광해군 8년 성균관 유생으로서 당시 집권세력의 죄상을 규탄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유배됐다. 그때 〈견회요〉, 〈우후요〉 등 시조 6수를 지었다. 치열한 당쟁으로 20여년의 유배생활과 19년의 은거생활 중에 많은 시조를 지었다.

그중 〈오우가〉가 수록된 〈산중신편곡〉과 〈산중속신편곡〉, 〈어부사시사〉 등의 시가는 한국어에 새로운 뜻을 창조해 활용한 서정적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동주^{1920~1978}의 시 〈강강술래〉를 읽다보면 느려졌다가 빨라지는, 속도감이 느껴지며 자연스레 시에 몰입된다. 이동주는 전통적인 음악성에 의존한 고전적인 시 세계를 그려 우리 민족의 서정을 형상화한 서정시의 대가로 손꼽힌다. 특히 이 작품은 음악성에 회화성이 가미돼 그의 작품 중에서도 수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1 백호 일제 시비 2 놀재박상 시비 3 이수복 시비 〈불바

해서 김인후(1510~1560)의 시비는 사직공원 내 관덕정에서 서동으로 내려가는 길에 있다. 인종을 가르쳤던 그는 1545년 인종이 즉위 8개월 만에 사망하고, 을사사화가 일어나자 병을 이유로 사직하고 고향인 장성에서 성리학 연구에 정진했다. 인종의 사망으로 큰 충격을 받아 술과 시로 방황했다고 전해진다.

이수복(1924~1986)의 시비 위에는 봄비를 맞고 싹을 틔운 새싹이 돋아나 있다. 이수복은 전남 함평에서 태어나 방림동에서 평생을 살며 교직에 종사했다. 송일고, 수피아여고, 광주일고, 순천고, 전남고를 거쳐 광주 주암고에서 수업을 하다 과로로 쓰러져 순직했다. 이수복 시인의 시비는 2003년 5월에 고향인 함평천의 제방 위에도 건립됐다.

나주 출생인 임제(1549~1587)는 서도병마사로 임명돼 부임하는 길에 황진이 묘에 제사를 지내고, 이 시조를 지었다는 이유로 부임하기 전에 파직당한다. 39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했다.

충무공 이순신(1545~1588)이 임진왜란 도중, 한산도 제승당에서 지내면서 지은 시조도 있다. 마치 거북선 위에 시가 새겨진 탑이 올라와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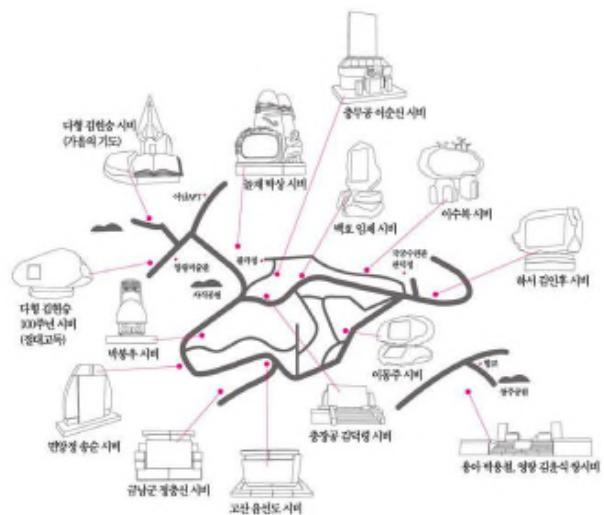
충장공 김덕령(1567~1586)은 임진왜란 당시 고정명 장군 휘하에서 큰 공을 세웠다. 하지만 아몽학의 난에 억울하게 연루돼 혹독한 대형을 맞고 숨을 거두고 만다. <춘산곡>은 김덕령이 역적으로 몰려 옥사하기 직전 자신의 심정을 읊은 시다. 시비는 사직공원 사직단 건너 관리사무소 옆에 있다.

눌재 박성(1474~1530)의 시비는 사직공원 전망타워(옛 팔각정) 입구에 자리잡고 있다. 1519년(중종 14년) 기묘사화는 훈구파에 의해 사림파의 조광조가 축출돼 능주에서 사사된 사건이다. 이때 눌재는 서창의 절골 마을에서 어머니 3년 상중에 있었기에 화를 면했다. 그는 사화로 참사를 당한 인재를 안타까워하며 100여편의 시를 지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산거시>다. 자연의 아름다움에 빠져 살면서도, 어쩔 수 없이 바깥세상에 마음을 쓸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한편 서구 놀재로는 그의 호를 딴 길이다.

광주공원에는 용아 박용철과 영랑 김윤식의 쌍시비가 있다. 광주문 화재단과 공원 사이 도로를 따라 올라가면 시 <떠나가는 배>와 <모란이 피기까지는>이 새겨진 시비가 두 사람의 우정을 반영하듯 사이좋게 붙어있다.

박용철은 일찍이 김영랑의 시적 능력을 간파해 일본 유학시절부터 시 쓰기를 권유한다. 1930년 3월 영랑은 <시문학> 창간호에 작품을 발표하면서 정식 등단한다. 이 <시문학>은 박용철이 발간을 주도한 것으로, 그는 이 문예지를 통해 꾸준히 영랑의 시를 부각시킨다.



사직공원, 조선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던 사직단

서울에 창경원이 있었다면 광주에는 지금은 우치공원으로 옮겨간 사직공원 동물원이 있었다. 타지에 사는 친척들이 광주에 놀러 오면, 자주 찾곤 했던 곳이 무등산장과 사직공원이다. 지금 사직공원을 보면 그다지 크지 않은 규모같지만 어린이 발걸음으로 오르락내리락 하기엔 정말이지 드넓은 장소였다.

호랑이, 사자, 원숭이, 뱀, 홍학, 오리, 꿩, 사슴 등 볼거리는 물론이고 먹을거리도 넘쳐났다. 지금도 놀이공원에 있는 솜사탕, 풍선을 보면 그때의 추억에 젖어들곤 한다. 삼촌과 찍은 타조사육장앞에서 찍은 사진을 보니 그때 기억이 생생하다. "타조가 뒤에서 온다며 겁을 주던 삼촌 때문에 놀란 나의 얼굴을 보니 입가에 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당시 사직 동물원에는 명불이 있었다. 동물원 입구 매표소에 하얀 진돗개가 있었는데 이 진돗개가 낳은 새끼의 발이 3개였다. 그때에는 3족구(3형으로 발이 3개인 개)가 태어나면 100년 묵은 여우가 환생한 것이라는 속설이 돌았다. 당시 지역 신문들이 특집으로 이 이야기를 실었었다.

사직공원의 추억은 동물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계단을 한참 내려오다가 보면 수영장이 있었다. 수영장이라기 보다는 풀장에 가까웠다. 지금의 워터파크처럼 멋지지는 않지만 상당히 넓어서 간식으로 통닭을 싸들고 부모님과 물놀이 왔던 기억이 난다.

사직공원은 광주의 제2호 공원으로, 일제강점기인 1943년 4



위 사직공원 신축로 아래 사직단

월 19일에 결정된 도심공원이다.

사실 오랜 옛날부터 사직공원은 신성한 공간이었다. 이곳은 조선 태조3년에 나라의 안전과 풍년을 기원하며 땅의 신과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올렸던 사직단이 있었던 곳인데, 1894년 제사가 폐지됐고, 1971년 사직동물원이 들어서면서 사직단은 헐리고 말았다.

하지만 복원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높아져 여론이 조성되자 1991년 동물원을 우치공원으로 옮기고 사직단을 복원해 1994년 4월, 100년만에 사직제가 부활했다.

주요 시설로는 복원된 사직단과 광주영어방송(옛 KBS), 경찰충혼탑, 양파정, 전통국궁 수련장인 관덕정이 있다. 아침 여덟시와 오후 세시 무렵, 관덕정 근처를 지나다 보면 궁사들의 활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수영장 터에는 시민들의 체육시설이 자리 잡았다. 이곳은 종종 노천극장으로도 변신한다. 야외음악회가 마련될 때면 음향기 안에서 댄서들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게다가 형형색색의 무대 조명들이 나무를 비춰 장관을 연출하기도 한다. 귀로는 음악을 듣고, 눈으로는 나무들의 오케스트라를 보는 듯 환상적이다.



1



2

1 옛 사직수영장 터. 사직뜰리 중 하나인 '흐르는 풍경도 스탠드'에 보인다
2 옛 사직수영장으로 내려가는 계단



옛 사직동물원 터

버려진 공간·시설물 활용한 공공 예술 작품

‘사직폴리’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광주광역시 주최, 광주문화재단 주관으로 진행된 ‘사직공원 공공예술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 프로젝트는 기억조차 사라지고 있는 사직공원의 숨은 공간들을 예술로 재생시키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친환경적이고 공공성을 띠는 작품 5개를 영구적으로 설치한 것이 주 내용이다. 특히 공원에 새로운 것을 추가하기보다는 버려진 공간, 기존의 시설물을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2011광주폴리프로젝트의 승효상 총감독을 위원장으로 주대, 국내의 건축계에서 촉망받는 건축가들을 추천받았다.

먼저, ‘스텝’(김영준)은 공원 입구의 주목받지 못하는 경사지를 동·서·남·북의 레벨 차를 이용해 계단 형식으로 꾸민 작품이다. 소공연장, 벼룩시장, 야외 갤러리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기슭’(이민아)은 호국무공수훈자 전공비 옆 산책로를 재해석해 조경과 더불어 걷고 싶은 공원의 길이 됐다.

‘사직공원 빈집’(조민석)은 공원 내 파고라와 배드민턴장을 활용했다. 속이 흰히 뚫린 기둥 형태의



위 흔적 아래 사직공원 빈집

공간에 기하학적인 도형의 창을 내 시민들의 쉼터로 내줬다.

공원관리소의 일부를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준 '흔적 (박동준)'은 사직단과 팔각정으로의 흐름을 연결해주는 가교로 활용했다.

'흐르는 풍경' (신혜원)은 옛 수영장 부지 스탠드에 리드미컬한 곡선을 가미, 삭막한 공간을 다목적 이벤트 공간으로 쓸 수 있게 했다.



스텝



위 기슭 아래 흐르는 풍경

한국 전통가옥에 일본 양식을 더한 건물

양림동 바로 옆 동네 사동. 광주천 건너지역으로 공원과 향교가 있어 고색창연한 곳이다.

사동 128번지에는 흔히 '최부자집'으로 알려진 2층 규모의 근대 한옥이 있다. 사직공원을 오르다 영상센터 못미쳐 우측으로 난 길을 따라가다 보면 나무와 벽돌이 뒤섞인 기와집이 나온다.

이 집은 일제 때 독립운동가로 활동했던 최상현 선생이 큰아들 최정숙을 위해 지은 집이라고 전해진다. 최상현 선생은 한말에서 일제시대 때까지 광주의 부자로 손꼽혔던 만석꾼 최명구 선생의 아들이다.

1920년대 초에 6개월의 공사기간이 소요됐다고 한다. 예전에는 품격 높은 솟을대문에 꽃담장까지 있었고, 대지엔 다른 부속 건물들도 있었으나 지금은 헐리고 없다.

최부자집은 전통한옥에 일본식, 서양식 건축양식이 혼재된 독특한 근대유산으로서 보존해야 할 문화적 가치가 매우 크다.

외부는 둥근 주춧돌 위에 원 기둥이 세워져 있고, 내부는 사각기둥이며 사방으로 마루가 둘러져 있다. 대를 보는 백두산에서 가져온 목재라고 한다.

이곳은 일제 식민지 시대 민족운동의 거점이었고 노동 농민운동의 중심지였다. 한때 최부자집은 주점과 독



서실 등으로 활용되면서 내부에 벽이 설치되기도 했었다.

집 주변의 풍광에 얽힌 이야기도 있다.

옛날 광주천은 천변 장터 앞에서 불줄기가 길라져 한줄기는 지금처럼 서석교, 부동교, 중앙대교 밑으로 흘렀고, 다른 한줄기는 사직공원 쪽을 에둘러 사동을 감돌아나갔다고 한다.

바로 최부자집 앞을 흐른 것. 당시만 해도 광주천의 본류라고 하면 바로 이사동 앞 물길을 가리켰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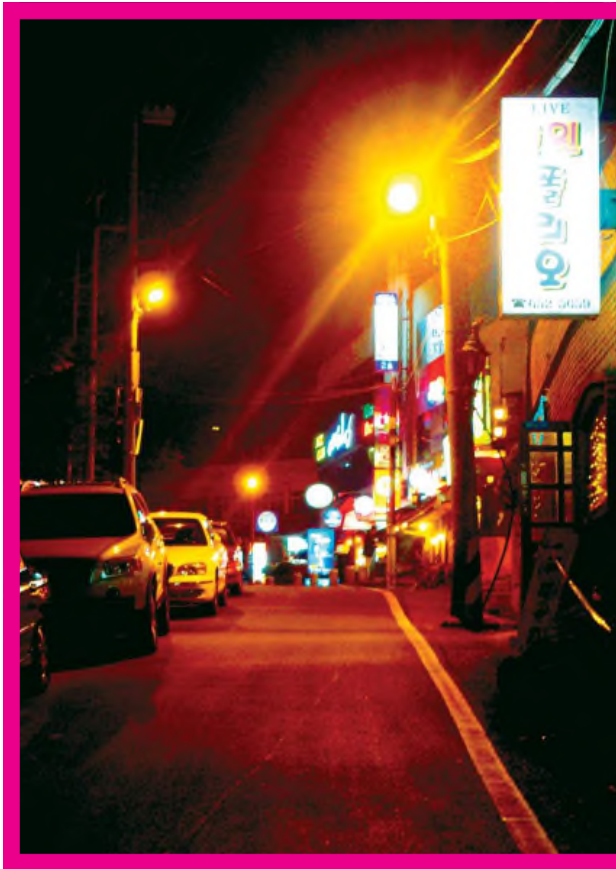
실제로 최부자집 언저리엔 노지다리라 불리던 커다란 흙다리가 놓



여 있었다고 한다.

이 다리는 1907년 광주교, 공원다리라 불리는 신식다리가 놓이기 전 광주천에서 가장 큰 다리였다.

한편 이 집의 대지는 전남대가 소유하고 있으나 가옥과 화장실 건물은 최정숙의 아들인 최윤성씨와 최정숙의 장녀 최순씨 소유로 돼 있다고 한다. 현재 최상현 선생의 손녀인 최순 선생이 이 집에 거주하고 있다.



116 광주근대역사문화마을, 양립을 걷다

1970년대 시작된 '포크음악'의 산실

양립 파출소를 끼고 사직공원 방향으로 오르면 우측으로 오래된 건물들이 즐비하다. 1970~1980년대에는 기타집이라 불렸던 곳, 사직 포크음악의 거리다.

이 지역에 포크 음악이 뿌리 내리기 시작한 것은 1972년부터다. 이장순·국소남씨로부터 비롯된 광주 포크 음악은 박문옥·정용주·한보라·김원중씨 등으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한창 인기를 끌었던 '세시봉'이 과거 30년 전의 추억을 곱씹는 데 반해, 광주 포크 뮤지션들은 70년대부터 포크 음악의 생명을 지키며 팔딱팔딱 숨쉬고 있는 음악을 생산하고 있었고 80년대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 등 음악에 시대를 반영한 곡들을 선보였다.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에 이어 아이돌 열풍에 포크 음악이 주춤했을 때에도 이들은 통기타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지역 포크음악 역사에서 이장순 선생(1946~2012)을 빼놓을 수 없다. 지난 2012년에 세상을 떠난 광주 통기타의 대부 이장순 선생의 마지막 거처도 사직골에 있다.

그는 1972년부터 광주·전남 지역 통기타 문화를 전파시키고 이끌어 온 빛고를 포크업계의 살아있는 전설로 꼽힌다. 파월 맹호부대 용사로 월남전 참전시에도 통기타를 메고 갈 정도로 통기타를 사랑했었다고 한다.

광주의 독특하고 풍성한 음악적 지양분과 폭넓은 마니아층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광주만의 문화와 '사직골 통기타 거리'라는 명소를 만들었다.

한때 쇠락의 길을 걷기도 했으나 여전히 이곳을 찾는 발길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과 광주광역시가 2014년 8월 23일 사직공원 일대에서 연 '2014 광주사직국제포크음악제'에 온 세대가 열광하면서 통기타거리 역시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한번 둘러보시라 가족 같은 분위기에 흠뻑 젖어들 것이다.





광주·전남 순국경찰관 3,196명 넋을 기린다

양림파출소 길을 따라 사직 포크음악의 거리쪽으로 올라가면 경찰충혼탑이라는 커다란 표지석 옆으로 길다란 돌계단이 보인다.

돌계단으로 걸어올라가니, 충혼탑과 양파정이 나온다.

순국경찰충혼탑은 여순반란사건과 6·25전쟁 등 나라와 겨레를 위해 목숨을 바친 광주·전남 출신 순국경찰관 3,196명의 위패가 봉안된 곳이다.

순국경찰충혼탑은 원래 1956년 전남도청 상무관 정원에 건립됐다. 그러나 붕괴될 위험에 처하자 1979년 10월 충혼탑 이전건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1981년 10월 23일 현재의 자리에 세워졌다.

2006년 10월에는 국비 2,700만원이 투입돼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작업이 이뤄졌다.

한편 경찰충혼탑에서는 현충일 추념식과 경찰의날 행사 등이 매해마다 개최되고 있다.

수해막이 ‘석서정’을 기린 정자

사직공원 입구에 있는 양림파출소를 지나면 오른 쪽에 가파른 돌계단이 보인다. 그 계단을 오르면 잘 가 꺾진 수목사이로 정자가 나타난다. 정자의 이름은 양 파정, 고려말 광주천에 건축돼 홍수를 다스린 석서정 을 추억하며, 정낙교가 1914년 양림산 바위 언덕에 지 은 곳이다.

강물이 언덕을 휘감으며, 물결을 일으키는 데서 깃 버들 ‘양뿔’, 물결 ‘파궤’를 써서 양파정이란 이름이 붙 었다고 한다.

정내에는 양파정이라는 작자미상의 대서현판이 정 면에 걸려있고 상량 아래의 횡목 위에 후손 정민영의 소서인 또 하나의 대서현판이 걸려있다.

주인 정낙교의 원기원운을 비롯한 운남 정봉현의 기 문, 그리고 운양 감윤식의 화정, 여규형, 무정 정만조, 강암 이용식 등 당시 명인들의 시문 30여개가 남아있다.

시문화재로 보호받고 있는 양파정에 관해서는 정자 아래 조탄(趙坦)이라 기록된 여율이 있어 아름다웠다는 내용의 많은 시문이 전해 내려온다. 이 여율을 시민들 은 ‘곳(곳→菊) 바심소’라 불렀는데 경양지로 물을 끌 어가던 보개가 있어서 수심이 10여미터 달했다고 한다.

홍수 때면 물난리를 겪는 곳이라 수해막이로 물소



를 조각한 석서정을 세웠던 곳에 양파정을 세웠다고 양파정기에 쓰여 있다. 불로동쪽 강변에는 호반누각 히노루야^{春の家}라는 일본기생 요정이 1911년 문을 열었고 보트놀이까지 했다하므로 양파정에서 눈요기 할만 했을 법 하다.

현재 바닥은 일반정자에서 볼 수 있는 마루가 아닌 콘크리트로 돼 있으며, 사면이 철제손잡이로 둘러져있다.

광주시내의 전망을 완벽하게 볼 수 있는 높이는 아니지만 양파정에 앉아 있으면 저 멀리 키 자랑하는 아파트가 보이고 무등산을 가로막는 거대한 빌딩 때문에 시야와 마음이 답답해져온다.

그 아래 사방으로는 집들이 울창줄망하게 촘촘히 내려앉아 있다.

이렇듯 양파정은 아파트와 빌딩보다는 낮은 곳에 서민들 주택과 눈높이가 비슷한 양림산 야트막한 산자락에 자리 잡고 있다.

빠른 세태 속에서 돈이 되는 곳이라면 몽땅 허물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는 마당에 광주의 도심 속에서 잠시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양파정은 오염에 찌든 도시의 산소와도 같은 소중한 자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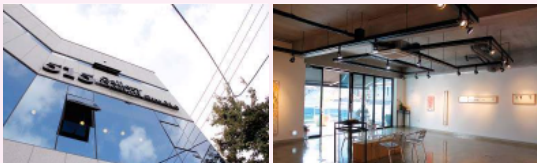


양파정에서 내려다본 광주전



515갤러리

다양한 문화의 소통, 교류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515갤러리. 이곳은 대관전시와 기획전시, 작가 지원전을 비롯해 캘리그래피, 크리스탈 공예와 같은 교육 강좌들과 더불어 공연도 볼 수 있는 복합문화예술공간이다. 양림동 학장초등학교 옆 3층건물에 위치한 515갤러리는 1층은 카페, 2층은 갤러리 및 사무실, 3층은 게스트하우스로 운영되고 있다. 일상이 지루하다 생각되는 분들은 이곳에서 예술과 디자인을 통해 감각적이고 창의적으로 바뀌는 우리 일상의 변화를 느껴보시길!



개관시간 월요일~토요일 10:00~18:00(매주 일요일 및 공휴일 휴관)
문의 062-654-3003
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영림동 72-3

양림 미술관

양림길 끝자락, 호남신대학교 정문 맞은편에 위치한 양림미술관. 언뜻 평범해보이지만 건물 벽, 그리고 골목길 어귀 군데군데에 위치한 예술작품들로 그 자체가 커다란 미술관이다. 양림동을 대표하는 미술관답게 장르를 초월한 다양한 예술 작품과 그것들이 뿜어내는 창의적인 기운이 가득 담겨있다.

14시부터 17시 30분까지 짧은 시간동안에만 운영되며, 월요일에는 휴관한다.



개관시간 화요일~일요일 14:00~17:30(매주 월요일 및 공휴일 휴관)
문의 062-675-7009
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영림동 108-1

한옥식당

삽겹살 10,000원(170g) 애호박찌개 7,000원

(구) 신용식육식당이라는 상호로 시작해 지금의 상호로 바꾼 한옥식당은 천변에서 양림교회 가기 전 오거리의 작은 골목 안에 위치해 있다. 비교적 평범한 골목을 지나 식당안으로 들어가면 개조한 오래된 한옥의 모습이 드러난다. 소고기, 돼지고기, 고기류와 애호박찌개, 감자찌개, 비빔밥 등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식사류가 주메뉴이고, 거기에 더불어 오래된 한옥의 정취는 덤이다.

다이닝다디오

피자 9,000원~11,500원 파스타 7,500원~11,000원

광주 호남신대학교 내에 위치한 카페 겸 레스토랑, 다이닝다디오는 나름 높은 부지에 위치해 있어 광주 시내가 한눈에 펼쳐지는 좋은 전망을 가진 곳이다. 넓은 실내를 비롯, 오픈이 되는 한쪽 유리벽 앞에 꾸러진 무대 위에선 가끔씩 재즈밴드의 공연도 볼 수 있다. 커피와 샌드위치, 피자, 파스타 등 양식을 판매하고 있으며 가격은 대부분 10,000원 선이다. 다이닝다디오는 바쁜 생활 속 잠깐의 여유를 선사할 멋스러움이 가득한 공간이다.

양림동 떡볶이

떡볶이 4,000원 샌드위치 5,000원

남다른소 좋아하는 간식인 떡볶이를 판매하는 양림동 떡볶이는 이제 양림동에서는 안 될 상징적인 맛집으로 자리매김했다. 떡볶이를 비롯, 커피, 샌드위치, 토스트 등,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간식들을 판매하고 있다. 가격대는 3,000원에서 7,000원까지. 비교적 만원을 넘지않는 저렴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분식집스럽지 않게 카페 같은 분위기의 가게에 들어가면 '화확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신선한 최상급의 재료로 음식을 만드는데 우리의 자존심'이라는 글귀가 보인다. 양림동 떡볶이의 요리를 먹다보면 손님들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사장님의 독심까지 전해진다.

까스까스 돈가스

돈가스 7,000원 돈가스 정식 10,000원

양림동 기독교대학교정문에 위치한 까스까스 돈가스는 튀김옷을 입힌 고기위에 달콤한 소스를 얹은 정통 돈가스부터 치즈돈가스, 생선가스, 함박스테이크 등을 판매하고 있다. 다른 매장과 차별화되는 남다른 사이즈의 돈가스가 일품인 곳으로 가격은 7,000~10,000원이다. 방문포장도 가능하다.

영스넥

김밥 2,500원 라면 2,000원 비빔밥 3,000원

평창히 오랜 세월을 양림동과 함께해온 분식집, 영스넥. 몇 십년이라는 세월동안 변하지 않고 그 자리,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영스넥은 맛 또한 예전 그대로다. 저렴한 가격으로 광주광역시에서 물가안정모범업소로 착한가격업소에 지정됐다. 김밥, 라면, 짬뽕, 비빔밥 등 여타 다른 분식집들과 같은 메뉴의 음식들을 판매하지만 다른점이 있다면 영스넥의 음식에는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된 시간동안 함께해온 영스넥 손님들의 추억과 기억들이 서려있다는 점 아닐까?

04

양림오거리
길을
걷다

원곡동굴
이장우 가옥
최승효 가옥
정공원자바와 총건상
오월어머니집
펜킨릿밭& 참새야 놀자
송일학교
양림동 토박이 정익순 할머니 인터뷰



일제 방공호에서 지금은 양림동 안내관으로

사직공원이 자리 잡고 있는 양림산 끝자락 언덕 위에 기와를 얹은 정자, 양파정이 보인다. 그 양파정 아래 양림동 방향으로 집들과 가게가 모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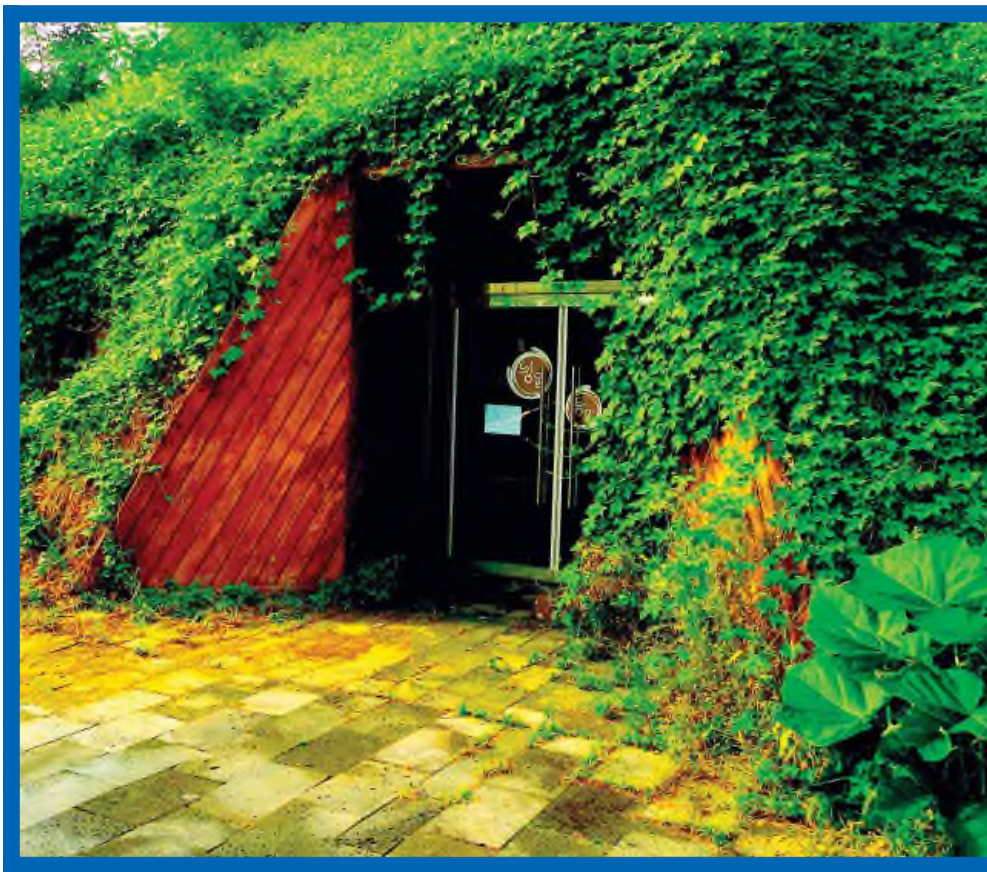
그중 고팡표 가옥을 지나 광주천 방향으로 가다 보면, 왼쪽에 야트막한 양림산이 있는데, 언덕 아래에 동굴이 몇 개 있다.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만든 방공호다.

설에 의하면, 양림산 중턱에 네 개의 방공호를 뚫었다고 한다. 그중 한 곳은 찾을 수가 없고, 나머지 세 개가 이 근처에 모여 있다.

해방 전까지 일제의 방공호로 사용되다가, 해방 이후 부랑자들의 소굴로 쓰였다고 한다. 한때는 양림 마을 부자들의 피서지로 활용됐었다.

고팡표 가옥을 지나 처음 만나는 동굴은 현재 가정집의 저장고 시설로 사용되고 있다. 바로 옆 하나는 대동문화재단의 문화재 지킴이 휴식처로 쓰이고 있고 또 다른 한 곳은 귀퉁이를 돌아 양림치안센터 바로 옆에 광주천과 마주하고 있다.

시내 한복판에, 그것도 도로가에 동굴이 있다는 것을 아는 이는 많지 않을 듯싶다. 일명 '뽕굴동굴'이라 불리는 이곳은 탐방객들에게 공개돼 있다. 사람들



이 한가롭게 텃굴거리며 놀던 동굴이란 뜻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제의 잔재로, 아픈 역사를 기억나게 한다.

탐방을 원하면 입구 안내판에 적힌 번호로 문화해설사에게 연락하면 해설과 함께 동굴 안을 탐방할 수 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특유의 냄새가 풍겨온다. 사우나 냄새 같기도 하다. 동굴 안은 매우 습하다. 벽에는 이슬이 맺혀 있고, 천장 여기저기서 물이 떨어진다. 벽면에는 안내판에 양림동의 역사와 문화, 유적에 관한 이야기가 적혀 있다.

참고로 가정집으로 이용되고 있는 동굴은 문화해설사의 장 형이 살고 있으며, 개방중인 텃굴동굴의 열쇠도 보관하고 있어 그 집으로 가면 가정에서 이용하는 텃굴과 텃굴동굴 등 두 곳을 모두 구경할 수 있다.



텃굴동굴 열쇠를 보관하고 있는 문화해설사의 장 형이 살고 있는 다른 동굴 내부



1899년 호남 부자가 지은 상류층 가옥의 전형

광주의 근대문화와 함께 자리를 지켰은 전통가옥을 소개한다.

이장우 가옥은 광주 민속자료 제1호다. 1899년, 당시 호남의 부자였던 정병호가 안채와 대문간을 건축했고 1965년 이장우가 매입해 사랑채와 행랑채, 곳간채를 완성했다. 이장우가 이 집을 사들이면서 지금은 '이장우가옥'으로 불리고 있다.

이 집은 상류양식의 기와집으로, 안채가 'ㄱ'자로 꺾어진 것이 특징이다. 안채의 상량문에 '광무 삼년 을축 이월 십일일 축사'로 기록돼 있다.

항상 관리인이 상주하고 있어 방문이 용이한 편이다. 솟을대문 왼편 조그마한 문을 통해 들어서면 커다란 토방너머로 건물들과 정원, 텃밭 등을 만나게 된다.

봄날에는 오래된 홍매화의 향을 만끽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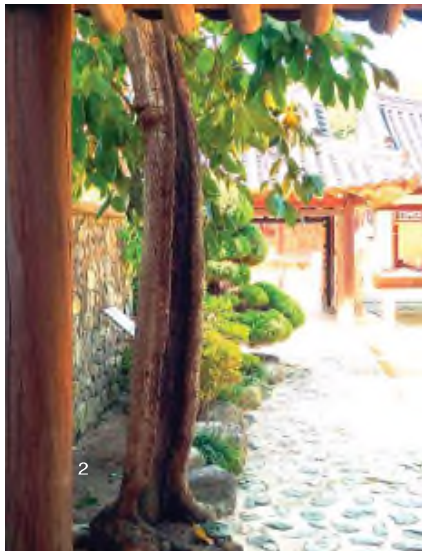
가옥은 사계절에 각기 다른 매력을 뽐낸다. 봄-살구꽃·매화, 여름-구룡화(철쭉)·목단, 가을-깽나무·단풍, 겨울-녹차꽃 등 계절마다 꽃이 핀다. 날찍한 후원의 깽나무와 가옥 곳곳을 지키는 황칠나무, 은행나무 등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다.

마당 한쪽에는 안이 움푹 패인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가진 것을 오롯이 내어 자식들에게 헌신하는 어머



1

1 이장우 가옥에서 광주비엔날레 20주년 기념 특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열린 '오월가족 해원 퍼포먼스'
2 '어머니나무'라 이름 붙인 감나무 3 가옥 후원에 뿌리내린 팽나무



2



3

니 같은 모습이다. 그래서 스토리텔링대원들은 이 나무에 '어머니나무'라는 이름을 붙여줬다.

과거에는 이 집터 언덕 아래서 굽이쳐 흐르던 양림천의 물길과, 집 정면에 펼쳐진 무등산 봉우리의 풍광이 집과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과도 같은 경관을 뽐냈다고 한다.

이장우 가옥은 송새벽, 이시영 주연의 영화 '위험한 상견례'의 촬영장으로도 쓰였다. 현재 이 집은 학교법인 해인학원(동신대학교) 소유로 돼 있다.

한편, 같은 골목을 끼고 있는 이장우 가옥과 최승효 가옥은 흥미롭게도 공통점이 많다. 두 가옥은 근대문화를 열었던 양림동에 위치해 있고, 서양의 선교문화와 동양의 유교문화가 공존하는 시대를 함께 해 왔으며 둘 다 광주광역시 민속자료로 지정돼 있다. 또한 주택 양식에서 보면 상류층 주택양식의 기와집으로 팔작지붕의 형태로 원형이 잘 보존돼 있으며 건립당시 소유주와 현 소유주가 다르다.

두 가옥 모두 풍수지리에 입각한 배산임수형으로 뒤로는 양림산이 떡 버티고 있고 앞으로는 광주의 혈관인 광주천이 흐르고, 그 너머로 광주의 어머니 무등산을 향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

안타깝게도 난개발로 인한 고층 빌딩이 시야를 가려 지금은 무등산을 바라보며 사색을 즐길 수 있는 풍광을 잃어버렸다.

두 가옥이 거리상으로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대지의 규모가 커서 실질적으로는 담장을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다.

3,000평 대지에서 전통가옥과 현대미술이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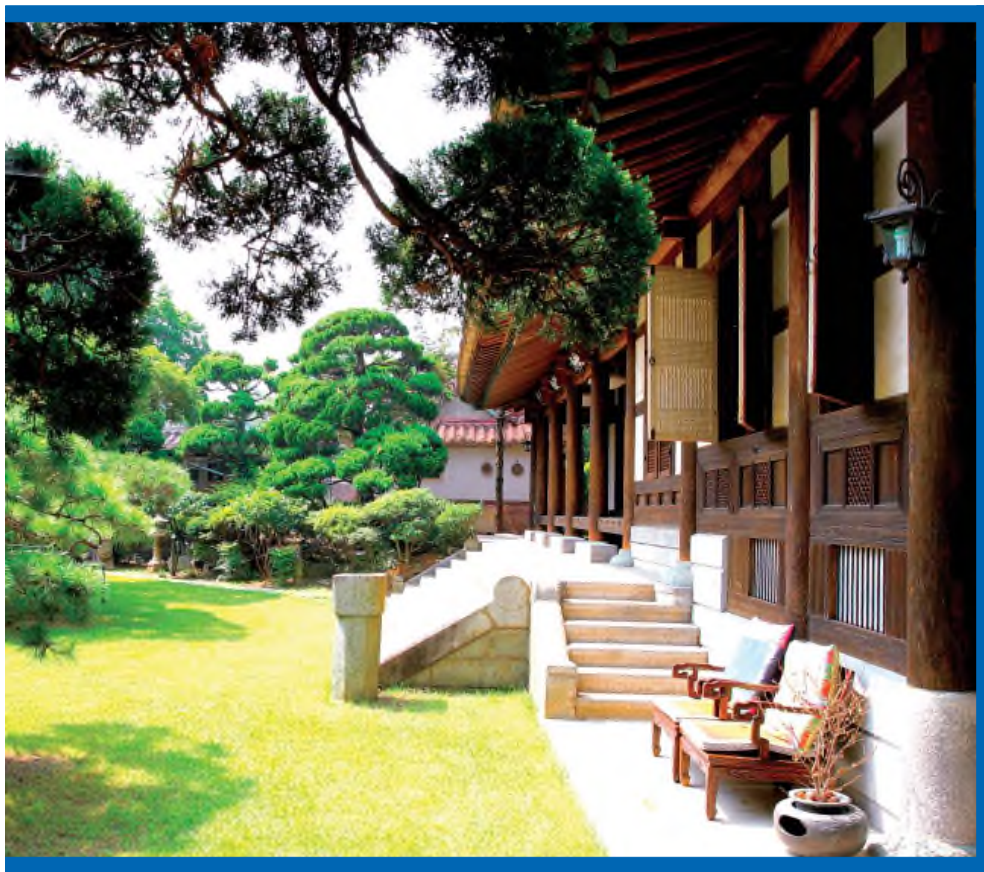
이장우 가옥을 나와 골목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막다른 골목에 최승효 가옥이 있다. 최승효 가옥은 광주 민속자료 제2호로 정면 8칸, 측면 4칸의 일자형 팔작지붕으로 규모가 큰 전통한옥이다. 독립운동가 최상현이 1920년에 지은 집으로 1965년 광주MBC 창립자 최승효가 매입해 최승효 가옥이라 불리고 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집의 규모가 무척 크다는 느낌이 든다. 실제로 한옥을 중심으로 정원, 연못, 작업실, 산책로 등이 방대한 대지 속에 잘 가꿔져 있다. 정원에 자태를 뽐내는 노거수 백일홍은 집안의 역사를 대변하고 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를 피신시켰던 다락도 볼 수 있다.

이 집의 건립자인 최상현 선생은 독립운동가이자 당시에 중국과 무역을 하며 막대한 부를 쌓은 재력가였다. 집의 건축 자재는 백두산과 압록강 인근의 목재로 최고의 품질을 자랑했을 뿐만 아니라 목재가 썩지 않도록 바닷물에 3년 동안이나 담가뒀다고 할 정도로 집을 짓기 전부터 큰 공력을 들였다.

게다가 격조 높은 건물을 지을 때만 사용하는 동판을 모든 서까래 끝에 박아놓아 부재가 상하는 것을



막았다. 덕분에 100년이 다 돼가는 세월에도 이 집의 안채인 자이당은 여전히 뒤를림없이 견고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집을 인수한 최승효 선생은 광주MBC 창립을 주도했던 인물로 이 집이 방치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단순한 개인 소유의 문화재가 아니라 모든 이들이 향유할 수 있는 광주 문화 예술의 사랑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이러한 선친의 뜻을 그의 아들인 설치미술가 최인준씨가 이어오고 있다. 그는 세계적인 미디어아티스트 백남준 선생의 제자로 1999년 이후 고택에서 자신의 예술작업을 계속해오고 있다. 지금의 고택 모습을 갖추기까지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3,000여 평의 대지에 자리한 고택과 그의 예술작품은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최승효 가옥은 평소에는 개방하지 않으며, 개방형 문화행사가 있을 경우에만 내부를 볼 수 있다.



효성 지극한 정엄 선생과 충성스런 개

정공읍지려는 승정원 동부승지 등을 지낸 정엄鄭
淹 1528~1580의 효행을 기린 정려旌閤다.

명종 때 문과에 급제해 관작에 나갔으며, 타고난
기질이 온화하고 단정·성실해 일을 정확히 처리한다는
평을 들었다. 선조 4년에는 전라도의 강직한 관리 3인
중 한 명으로 뽑혔고, 남원부사로 재직시 주민들을 따
뜻하게 돌봐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많았다고 한다.

특히 모친에 대한 효성이 지극했다. 병중인 모친
을 극진히 돌보다가 모친상을 당하자 슬픔으로 병을
얻어 별세하고야 만다. 그의 효성을 기리기 위해 1611
년 왕명으로 정려가 주어졌고 이후 퇴락해 1975년에
야후손들이 석조로 재건했다.

정려각 내에는 비석과 함께 충견상이 있다.

한양까지 주인 정공의 문서를 심부름하다 죽은 충
성스런 개의 이야기가 전해오는데, 후대에 이 정려
한편에 충견상이 세워졌다.

이 충견상의 주인공은 정엄의 아버지 정만종과 정
엄간의 소식통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

정엄이 전라감사로 있을 때 토종개 한 마리를 길
렀는데 어찌나 영리하던지 한양까지 문서 수발도 척
척 해냈다. 개를 보낼 때 목에 엽전을 넣은 전대를 달



광주 정씨 정엄 선생의 효행을 기린 비석과 충견상



1



2



3

아 주었는데 배고플 때 주막에 들러 밥을 얻어먹고는 주막 주인이 밥값 이상의 돈을 전대에서 꺼내면 즉시 알아차리고 으르렁거렸다고 한다.

어느 날 정엄은 급한 일로 산기가 있는 개를 한양으로 심부름을 보냈는데 개는 돌아오는 길에 아홉 마리의 새끼를 낳았고 주인이 살고 있는 감영까지 한 마리씩 차례로 물어 나르기를 거듭, 마지막 아홉 마리째 새끼를 나르고는 그만 지쳐 죽고 말았다.

정엄은 자신의 잘못으로 개가 죽었다고 크게 자책하며 석공에게 개의 상을 조각케 해 집 뜰에 세우고 추모했다. 정엄 선생 효자비가 세워질 무렵 충견상도 함께 세워져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한편 충견상을 모티브로 한 현대 작품도 있다. 사직도서관에서 천변쪽으로 내려가는 길의 인도 한편에 자리 잡은 '정공엄 충견 아트벤치'가 바로 그것. 아트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홍원철 작가가 정엄의 충견상을 모델로 만든 압수 한쌍의 아트벤치다. 양림동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한 아트 퍼니처 로, 충견상에 대해 상기시키는 작품이다.

1 정공엄 내에 세워진 비석 2 정공엄 충견상

3 정엄의 충견상을 모델로 만든 압수 한 쌍의 아트 벤치 중 국의 3대 음악가 정윤성, '검은 머리의 차이코프스키' 정주 등 많은 이들이 어릴 적에 타고 놀았다는 것에 착안하여 만든 양림동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아트 퍼니처다.



30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오월 상처’ 보듬는다

(사)오월어머니집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유가족, 특히 고령의 어머니들을 위로하기 위한 단체다.

2006년 동구 장동에 문을 연 뒤 2010년 동구 동명동을 거쳐 2014년 5월 이곳 양림동까지 오게 됐다.

오픈식 직전 설계자를 따라 설명을 들으며 둘러본 기억이 새록새록 돌아난다. 특히 벽돌 한 장 한 장에 어머니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 더욱 인상 깊었다. 오월어머니집은 벽돌 담장에 담쟁이를 올려 자연치유 역할까지도 고려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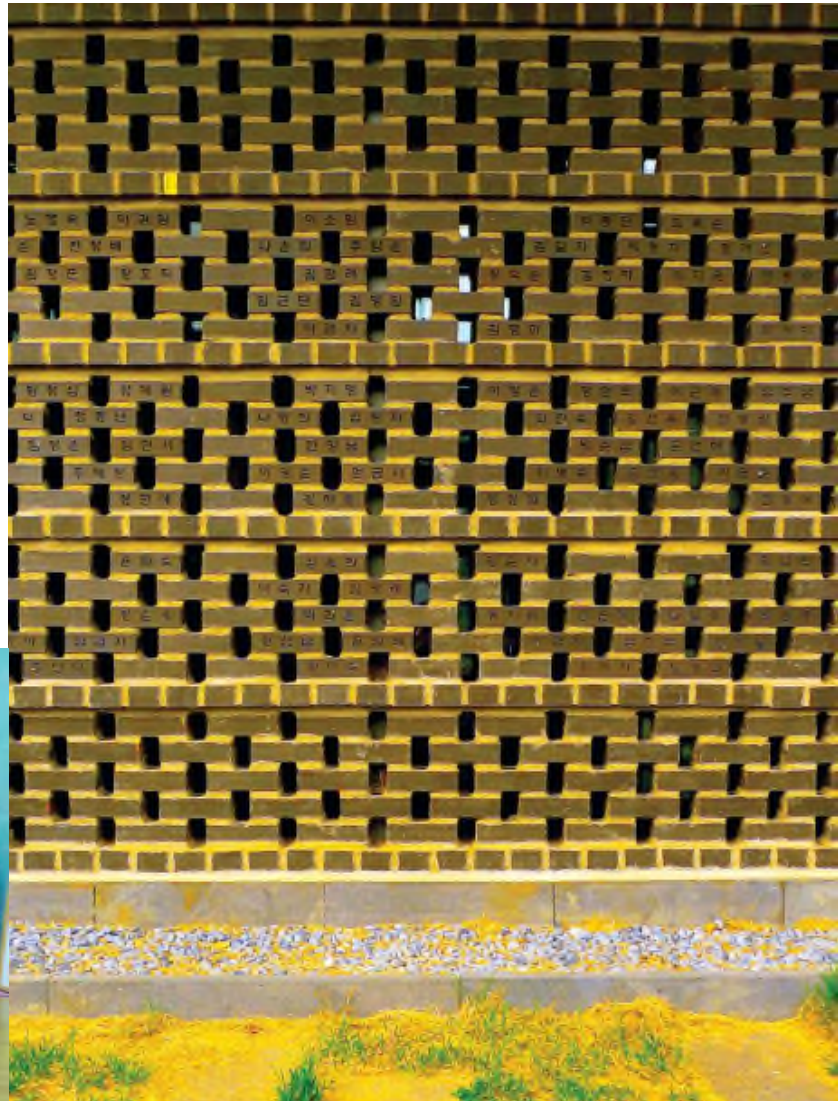
오월어머니집은 자체 치유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민주화운동 관련 사업도 벌이고 있다

올해에는 광주비엔날레 20주년 기념 특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오월가족 해원 퍼포먼스’를 펼쳤다. 오월가족과 함께 걷는 도보퍼포먼스와 함께 오월어머니집, 부상자회 회원들의 사진전을 열기도 했다.

지난 30여 년간 여성운동과 민주화운동에 헌신해온 이명자 오월어머니집 관장은 “‘오월어머니집 이 5·18로 희생된 사람들의 유가족, 어머니, 아내들의 든든한 쉼터 역할을 한다’고 했다. 시간이 흘러도 대부분 그날의 참상을 잊지 못하시는 그분들의 외로움을 덜어주고 아픔을 함께 나눈다는 것. 그리고 5·18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 잡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이야기했다. 참 가슴 뭉클한 일

이다.

한편 이 건물은 2014년 황주광역시 건축상에서 비주거부문 금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전통 한옥과 근대 건축이 공존하는 작품으로, 양림동의 문화와 정서가 잘 반영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벽돌 한 장 한 장에 어머니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쓰레기 넘쳐나던 골목, 정크아트 현장으로 변신하다

양림동의 버려진 집들에서 나온 쓰레기의 집합소였던 곳이 '예술공간' 이 됐다. 정크아트를 보여주는 이곳은 최근 양림동에서 가장 떠오르는 곳으로 회자되고 있다.

펭귄땃밭은 사람들이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렸던 곳을 펭귄처럼 뒤뚱거리며 걷는 아저씨가 땃밭처럼 꾸몄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모기도 많고 냄새도 심한 이 곳에 오래된 액자와 옛 사진들, 고장난 시계들이 걸리고 투박하게 쓴 문구들까지 어우러지며 묘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유행 따라 살지 말고 형편 따라 살자.’

‘어느 누구보다 내 자신이 아름답다.’

‘우리 모두 행복한 세상.’

빈 집이 있어 썰렁해진 골목은 골동품 집합소가 돼, 추억 때문에도 눈길이 가고 안 어울릴 듯 하면서도 어울리는 손때 묻은 불품들이 절로 미소를 자아낸다.

어둡고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던 골목길은 이제는 ‘갤러리’와 다름없게 됐다. 수집품을 보기 위해 일부러 찾아오는 이들이 차츰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 작은 실천을 처음 시작한 이는 김동균씨다. 김씨는 1년여 전쯤부터 고물들을 모아 이곳에 걸어두





위 골목갤러리 아래 코딱지카페

기 시작했다. 양림오거리에 길이 뚫리고, 새로운 건물들이 생겨나면서 철거된 건물에서 나온 고물들로 작업을 하게 됐다. 텃밭 안에는 코딱지만큼 작은 ‘코딱지 카페’도 차려났다. 손님들이 오면 이 작은 공간 안에서 차를 나눠 마신다. 열무, 배추, 호박 등 텃밭 채소들은 이웃 주민들과 나눠먹을 몫이었다.

지금은 주민들도 좋아하는 골목갤러리가 됐다. 처음에는 무슨 괴상한 짓을 하는 거냐며 핀잔을 주던 주민들도 이제 나서서 물건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스스로 청소도 도맡는다. 쓰레기가 버려지던 골목에 그림이 걸리자 주민들은 자부심에 한껏 부풀어있다.

이곳의 명물이 또 하나 있다. 참새 다. 감동균씨와 주민들은 참새 몇 마리에게 싸래기 쌀을 줬던 것을 계기로 이젠 꼬박꼬박 끼니때마다 참새 모이를 챙기고 있다. ‘참새야 놀자’란 문패도 띄어놓았다.

“5마리가 10마리가 되고, 20마리, 40마리. 이제는 100마리가 넘는 참새들이 쌀알을 주워 먹기 위해 이곳에 옵니다.”

4개월 동안 참새 모이로 쓴 쌀 양만해도 60kg에 달한다. 오전 7시와 오후 3시. 이 때가 되면 참새 100여마리가 귀신같이 이곳에 모여든다. 참새들은 사람을 무서워해 ‘쌀알 밥상’이 차려진 길가에 누군가 지나갈라치면 전깃줄 위로 푸드득 도망치듯 날아갔다가 인적이 뜸해지면 또 바닥에 내려와 앉는다.

주민들은 “참새가 워낙 영리해선지 조금이라도 늦으면 밥을 달라고 떼거지로 옮기도 한다”면서 참새들에게 들어가는 쌀값도 만만치 않다며 웃었다.

‘헝권텃밭’과 ‘참새야 놀자’로 불거리가 생긴 이곳은 이제 동네 주민들의 ‘민남의 광장’이 됐다. 조만간 ‘헝권주막’도 간판을 달고 본격적인 손님맞이에 나설 계획이라고 한다.

광주 최초 사립 남학교

“동네 한가운데 학교가 있었어. 꽤간했제. 지금은 담장만 남았어. 그마저도 다 허물어불고 얼마 안돼.”

북구 일곡동에 소재한 송일중·고등학교는 1908년에 설립된 '송일학교'가 모태다. 1908년 유진 벨 선교사는 양림동에 학교를 세우고, '유일한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의미에서 학교 이름을 '송일'이라 붙였다.

양림동 오거리에서 오기원길을 따라 한참 가다보면 시멘트 벽 사이에 돌담이 눈에 띈다. 옛 송일학교 담장이다. 아쉽게도 10m 남짓한 이 돌담만 남고, 학교의 흔적은 찾을 수 없다.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무등파크맨션 옆 4층 규모의 원룸 자리에 송일학교가 있었다고 한다.

송일학교 학생들은 수피아여학교 학생들과 함께 항일운동을 주도했다.

학교 내에는 항일투쟁을 위한 열혈단체가 결성됐다. 열혈 교사들도 많았다. 1919년 3·1운동 당시, 송일학교 교사 최병준은 학생들에게 “서울과 기타 각지에서 벌써 독립운동이 일고 있는데, 이곳 광주에서만



이것을 좌시한다면, 후일에 동지들의 조소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라며 분발을 촉구했다.

숭일학교 교사와 전교생이 선봉이 돼 만세운동을 벌이다, 25명이 투옥됐고, 학생 송광준은 대구에서 옥사했다.

1937년 9월 6일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하자 숭일학교는 이를 거부해 문을 닫게 된다. 일제에서 해방된 해, 11월 21일 동창회의 주도로

숭일학교는 다시 문을 열고 학생들을 맞았다.

1947년에는 6년제 광주숭일중학교로 정식 인가를 받았으며, 1964년 3월 학교법인의 재단조직이 숭일학원으로 변경됐다. 1970년 3월에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분리돼 이듬해 2월에 현재의 위치로 동지를 옮겼다.

한편 전남도 대한기독교청년회연맹(YMCA)은 1911년에 창설된 숭일대한기독교청년회연맹을 발판으로 성장해왔다.



옛 숭일학교 담장



숭일학교 졸업생들

양림동 토박이 정의순 할머니 인터뷰

“양림 오거리서 65년,
나 모르는 간첩이여.”

양림동 오거리에서 '꼬마상회'를 운영하는 정의순 할머니는 이곳 토박이로 통한다. 스무살이 되기도 전, 광주로 시집와 양림동에 정착하며 이 동네와 함께 세월을 맞았다.

정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단골들이며 동네사람들이 가게를 찾아오는 통에 인터뷰는 손님맞이 반, 양림동 이야기 반으로 진행됐다.

“내가 지금 여든 셋인데, 열여덟에 시집 왔을게, 몇 년이여? 화순에서 광주로 시집와서, 백운동서 쫓까 있다가 양림동으로 왔제.”

정 할머니는 65년 동안 양림동에 뿌리내리고 살며 딸 다섯에 아들 하나를 키웠다. 꼬마상회를 운영하면서 써 놓은 장부는 한 권도 없지만, 손님들과의 거래 내용은 기막히게 기억했다. 덕분에 양림동에 관한 기억과 옛 추억도 또렷하다.

그는 “여기 양림오거리가 옛날 버스 2번, 5번 종점이었어. 이 근처에 큰 과자점도 있었고, 지금 한옥식당 자리에 있던 은혜약국에서 약을 사먹었던 기억도 나네”라며 “여기 앞 양림다리에서 옷도 빨고, 빨래도 삶았지. 다리 밑에선 뜨끈한 물도 제법 나왔어”라고 떠올렸다.

지금 오거리 끝에 위치한 대한의료기 자리에는 규모가 꽤 큰 정미소가 있었는데, 70년대까지 성업했다고 한다. 지금은 전혀 흔적



도 찾아볼 수 없다.

정 할머니는 선교사들에 관한 추억도 꺼내놓았다.

“우리 가게에서 선교사들이 물건을 출첸히 많이 샀어. 근디 내가 말이 통해야 말이지. 몸짓으로 해부렸제. 선교사들이 손으로 가리키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하든 끝이여.”

당시 기독교병원에 부임한 치과의사인 유수만 선교사에게 진료를 받았던 이야기도 흥미롭다. 그때에는 외국인 의사의 진료비는 한국인 의사에게 진찰받는 비용에 비해 2배나 비쌌단다.



“돈이 궁해가꼬, 이 전체를 외국인한테 진료받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었어. 그래서 왼쪽은 우리나라 사람한테 받고, 오른쪽은 닥터 유수민한테 받았제. 왼쪽 고친디 1만원 들었으믄, 오른쪽은 2만원을 내라고 했어. 근디 인자 왼쪽은 쓰덜 못해, 아조 이를 못쓰게 되어부러. 오른쪽은 썩썩해. 지금 다니는 치과에서도 오른쪽 이는 아주 좋다고 한당께.”

한창 옛 이야기가 무르익어갈 무렵, 길을 지나가던 할아버지 한 분이 정 할머니에게 말을 건다.

“늑두 있소?”

40년간 이곳에서 썰이며 각종 먹거리를 샀던 단골 손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이 할아버지는 “지금은 백운동에 사는데 물건을 살 땐 이곳으로 온다면서 ‘양림동에서 이분을 모르면 간첩이다. 양심적으로 판매해 물건의 질이며, 가격이 믿을만하다’고 말했다.

인터뷰 내내 정 할머니는 지나가는 행인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눴다.



양림오거리에서 오랜 시간 장사를 해와선지, 이 지역, 사람, 건물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

정 할머니는 양림동을 ‘구원의 방주’라고 표현했다. 선교사들 덕분에 이곳에서 신식 문물을 접하는 등 살기 좋고 편했다는 것.

그는 “지금 양림주민센터가 만들어지고 있는 자리는 원래 목욕탕이 있던 터”라면서 “목욕탕이 생기기 전에는 무명씨 기름을 짜던 곳이 있었다. 그곳에서 털뭇치를 가져와 실을 짓고, 무명베를 짰던 것도 생각난다”고 이야기했다.

“양림동이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면서도 “딱 한가지, ‘목욕탕’이 없어진 것은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정 할머니는 무엇보다도 이곳 사람들이 많이 떠나 양림오거리가 텅 비어버린 것이 제일 안타깝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오거리가 죽어가고 있어. 살려야 된다고,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그에 많이를 살든 쓰것어. 옛날 그 정이 잊혀져 간께 아쉬울 뿐이여.”

양림동 골목 사랑방

한눈에 보아도 오래된 집, 누군가가 심어놓은 작은 텃밭 사이에 평상 두 개와 다양한 색, 모양을 가진 의자들이 놓여있다. 양림동 할머니들은 삼삼오오 이곳에 모여 따뜻한 날씨와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다. 이곳에 놓인 평상, 의자는 단순히 사람이 쉬고, 앉는 가구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곳이다. 이곳엔 어린나이에 시집을 와서 힘들게 시집살이를 했던 세상물정 모르던 어린 새댁이, 어느새 수십 년의 시간이 흘러 자식들을 모두 키우고 혼자 남은 지금까지, 양림동 속에서 흘러온 그간의 세월이 벌어진 건물 벽 틈새에, 의자 등받침 위 쌓인 먼지더께 속에 스며들어 있다. 여태 그래왔던 것처럼 이곳은 양림동 수많은 주민들의 순간들과 함께 영원히 존재할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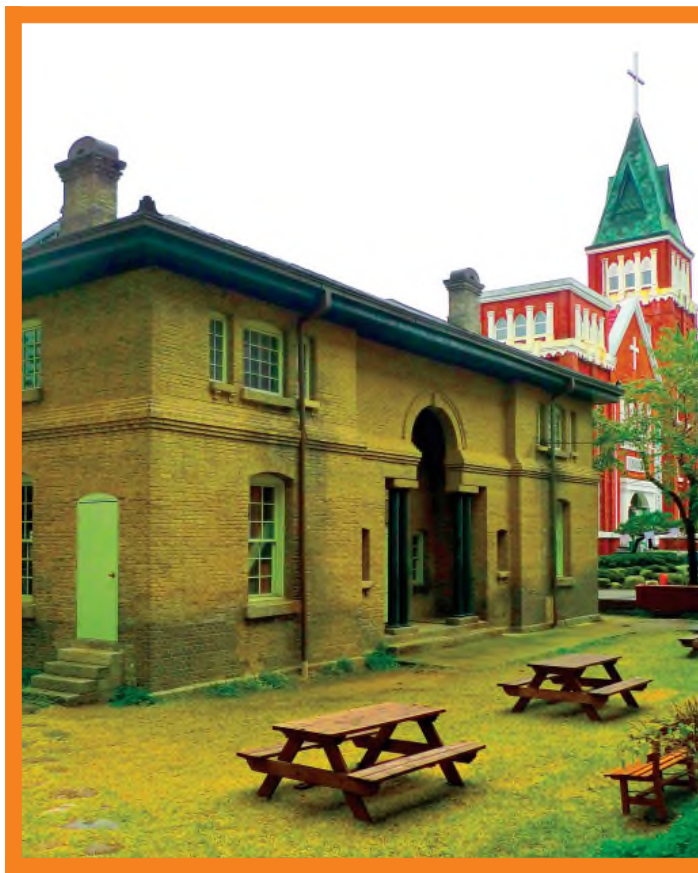


05

양림교회· 제중원 길을 걷다

오원기념각
양림교회
어바슨 기념관
3·1만세운동 발상지
정음성 가옥·홍상·거리
푸른길 공원
광주기독병원
선교사기념비와 5·18민중항쟁 사적지 표지석
양림동 타춤패김 김성봉 원장 인터뷰

광주기독병원
수피아여중고
기독건교
대학교
한양초등학교
양림동면사마
2교지



오웬기념각과 양림교회

성경학교·연극·음악회... 근대 광주의 '문화전당'

양림교회 옆 기독교대학교 교내에 있는 '오웬기념각'은 개화기 초기 광주의 많은 문화행사가 열린 근대 광주의 문화전당이라 할 수 있다.

광주·전남지역의 기독교 영성에 영향을 준 성경학교는 물론, 각종 문화예술공연과 교육시설 등으로 활용됐다. 1919년에는 3·1만세 운동을 고취하는 설교도 이뤄졌다. 1920년대 이곳에서 YMCA가 창립되는 등 근대 시민운동의 산실이기도 하다.

이곳은 선교사로 활동하다 순교한 오웬(Clement C. Owen, 1867~1909)과 그 할아버지를 기념하기 위해 1914년에 지어진 건물이다. 오웬은 할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 생전에 할아버지의 기념각을 지을 계획이었으나, 이를 추진하기 전에 순교했다. 그가 죽은 뒤, 미국의 친지들이 성금을 모아 보내면서 기념각이 지어졌다.

이 건물은 네덜란드식으로 회색 벽돌을 쌓아 만들어졌다. 내부에 나무 기둥을 세워 목재 자봉틀을 받친 것이 특징이다. 평면 형태는 정방형이지만, 내부 구조가 모서리에 위치한 설교단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고, 설교단의 반대편은 2층으로 돼 있다. 바닥은 설교단을 향해 약간 경사져 있다. 이곳에는 통로가 양쪽으로 나 있는데, 한 쪽은 남학생(승일학교), 다른 한 쪽은 여학생(수피아여학교) 등이 출입하기도 했다.

광주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6호로 지정돼 있다.

부속건물을 포함하여 연면적은 434㎡이다. 대리석으로 된 현관

에는 “IN MEMORY OF WILLIAM L. AND CLEMENT C. OWEN.
吳基冕及其祖傳廉之紀念閣”이라 쓰여 있다.

오웬기념각과 양림교회가 마주한 모퉁이에는 월계수나무가 서 있다. 월계수의 꽃말은 ‘승리’와 ‘영광’이다.

건축사적으로나 개화기초 서양 선교사들의 선교활동과 관련하여 의미가 깊은 건물이다.

오웬 선교사

1897년 10월 1일 목포항이 개항되면서 1898년 유진 벨 선교사가 목포 선교의 개척선교사로 결정됐다. 유진 벨 선교사가 선교부를 개설하게 되는데 이때 오웬 선교사도 합류한다. 오웬은 1899년 전남도 최초 서양 의료소인 목포진료소를 세우는 등 의료 사업에도 열정을 쏟았다. 그는 초기에 목포, 광주에서 의료·선교 활동을 병행하다, 병원에서 자유로운 복음 전파가 가능케 되자 유진 벨과 함께 전도 사업에 전념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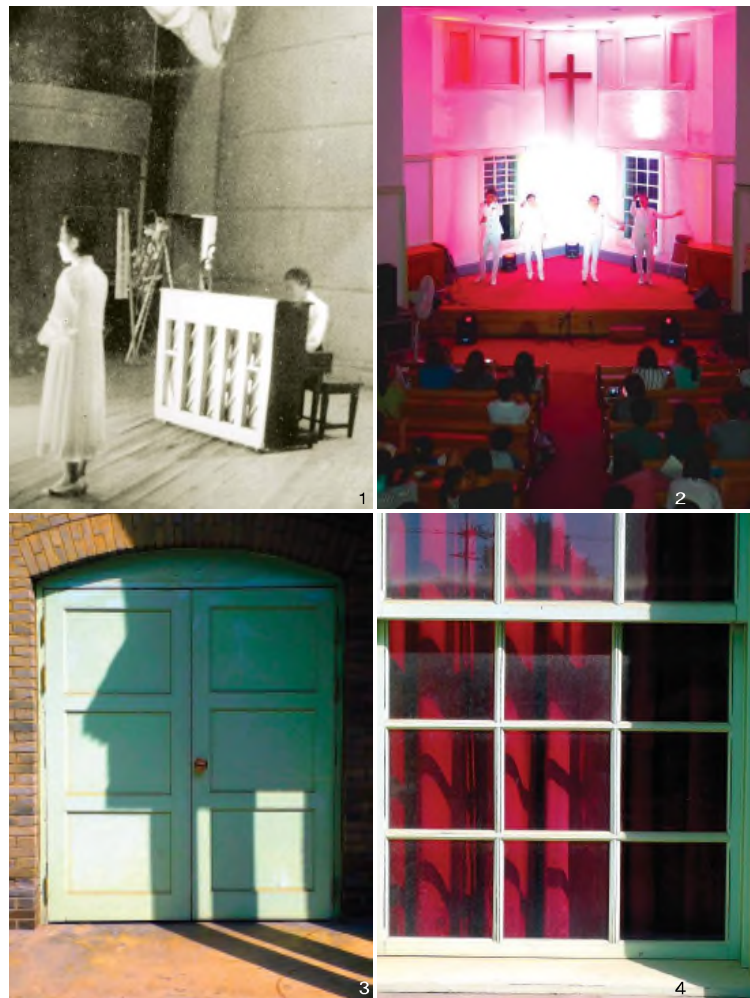
수피아여고 뒷동산에 위치한 오웬 선교사의 집 주변에는 당시 양림 천의 거지들과 한센인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었는데, 이는 그가 “가난한 자들의 이웃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했기 때문이었다.



좌 출입문과 건물 외부의 모습 우 중앙에 대리석으로 된 현판이 보인다

168 광주근대역사문화마을, 양림을 걷다

양림정형 공공기술 2.0 프로젝트



1 광주 최초의 음악발표회피아노반주 박순이, 성악 김말메
2 최근의 공연 모습 3 4 오웬기념각 건물의 이모저모

오웬기념각 169



어비스 기념관에서 바라본 양림교회

광주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건물

광주 최초의 교회는 1904년 배유지 선교사가 세운 '양림리 교회'다.

1903년, 목포에 모인 선교사들은 광주에 선교부를 개설하기로 결정하고, 1904년 3월, 양림산 일대를 매입한다. 매입 대리인은 목포에서 개종한 김윤수로, 그는 4월부터 가옥 2채를 짓기 시작했다. 나무는 무등산에서 벌채했으며, 벽돌은 양림동 일대의 흙으로 만든 다음, 가마를 조성해 손수 구웠다. 유리창과 전기 시설 등은 일본에서 수입해 조달했다.

1904년 12월 15일 집이 완공되고, 배유지와 오웬 선교사가 정은 김윤수 집사 가정과 조리사 서명석의 가정을 대동하고 12월 20일 광주로 옮겨온다.

당시 광주 사람들은 서양인들의 살림살이가 궁금해 구경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 이러한 원주민들의 마음을 알아챈 듯 배유지 선교사는 12월 25일 오전 11시 크리스마스 축하 예배를 기해 광주 사람들을 상대로 집구경을 실시한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200여명의 주민들은 하얀 옷을 입고 지금의 계명여자 주변 대밭 옆으로 하얗게 쌓인 눈길을 밟으며 배유지 선교사 집으로 향했다.

이날, 배유지 선교사 사택에서의 첫 예배를 시작으로 오늘날의 양림교회가 이어져 오고 있다.

양림리 교회에서는 일제강점기 호남의 교회 지도자 양성과 교회 설립, 근대 정신 보급과 인재 양성, 한글 사용을 비롯한 각



예배당 종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종 계몽운동이 비롯됐다.

근대 민족사의 격랑 속에서 한 동네 안에 같은 이름의 세 양림교회(기장, 통합, 합동)로 나뉘었으나, 1998년부터 서로 형제교회로 일치, 연합 운동에 힘쓰고 있다. 연합찬양예배, 역사의 숲 가꾸기 등을 꾸준히 지속해오고 있다.

오래된 교회 건물, 모퉁이의 머릿돌, 종, 붉은 벽돌 등이 인상적이다.





호남 농촌운동의 선구자를 기린다

광주 3·1만세운동의 주역들은 1920년 오웬기념각에서 광주 기독교청년회(YMCA)를 조직하고, 사회봉사활동을 하며 농민운동을 펼쳤다. 이들은 1925년부터 광주·전남지역에서 본격적으로 강습소, 농촌아학, 신용협동조합 등을 조직해 문맹퇴치, 농민운동, 종자보급, 농사법개량, 농산물 제값 받기 등을 벌였다.

이 무렵 광주로 온 이가 바로 고든 어비스(Gordon Wilberforce Avison, 1891~1967)이다. 쌀 농사 전문가인 그는 1926년 미국 YMCA의 지원으로 광주에 왔다. 특히 사재까지 털어 희생적으로 지역의 농촌 운동을 지원할 정도로 열정이 넘쳤다. 어비스는 목축을 하고, 통조림공장을 차려 수입을 올려 광주 YMCA의 농촌사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했다.

1933년 농촌사업지도자들을 양성하는 '농촌소년실습학교'를 세웠다. 일제의 탄압으로 YMCA의 활동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한 1938년까지 이 학교는 당시 전라도 지역 농촌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후에 이 자리에 호남신화대학교와 CBS광주방송이 자리잡기도 했다.

현재는 KT남광주지점 자리로, 행정구역상 백운동으로 돼 있으나, 역사문화적으로는 양림지역과 밀접하다.

어비스 가족의 한국 사랑은 특히 남달랐다.

고든 어비스는 세브란스 의전(연세대 의대 전신)과 병원을 개설한 고종황제 어의 올리버 어비스 박사의 장남이다.



또한 고든 어비슨의 부인은 한국의 영유아들을 위해 간호하고, 또 두유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역 영유아들이 영양실조에 시달리며 이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것을 안타깝게 여겨, 구하기 어려운 우유 대신 쉽게 구할 수 있는 콩을 이용, 두유를 만들어 영유아 사망률을 크게 낮췄다.



양림동에는 고든 어비슨을 기리는 기념관과 카페가 있다. 1층에서는 어비슨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만나볼 수 있고 2층 카페는 커피 값이 저렴하면서도 맛이 좋은 손님들로 항상 북적인다. 시원한 통유리 너머로 붉은 벽돌이 인상적인 양림교회가 펼쳐져 멋진 분위기를 자아낸다.

광주천 장터를 뒤덮은 태극기 물결

광주 3·1만세운동은 양림동에서 태동했다. 이를 기리기 위한 흔적이 바로 수피아여고 내 광주 3·1만세운동 기념동상과 양림동 3·1만세운동길이다. 양림동 3·1만세운동길을 올라가면 3·1만세운동 발상지가 나온다. 이곳에서는 당시 3·1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름과 출생지를 볼 수 있다.

광주 3·1만세운동은 김마리아 여사로부터 비롯됐다. 1919년 동경의 2·8독립선언에 참여한 김마리아 여사는 2·8독립선언서를 품고 부산, 대구를 거쳐 광주에 사는 언니 김함라 선생(남궁혁 장로의 부인·한국여성운동의 선구자) 집으로 가져와 독립선언에 대해 알렸다.

광주의 3·1운동은 최홍종이 서울에서 체포되자, 김철을 중심으로 남궁혁의 집에서 교인들과 비밀 독서모임 회원들이 거사를 계획하고 역할을 분담하면서 점점 가시화됐다. 3월 10일 광주천 작은 장터를 휩쓴 만세 물결은 본정을 거쳐 법원 앞을 지나 경찰서 앞까지 진행됐다.

이중 수피아 여학생 윤형숙은 한쪽 팔이 일본 경찰의 칼에 잘려나가자 다른 팔로 태극기를 흔들며 일제를 놀라게 했다. 유혈진압 끝에 100여명이 체포되고, 교회당은 불수됐다. 그러나 만세운동 후 광주에서는 이념을 초월한 전면적인 사회운동이 활발히 전개돼 이후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으로 이어졌다.



3.1 만세운동 발상지

The Epicenter of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1919년 동경의 2·8 독립선언에 참여한 김마리아가 한국독립선언서를 손에 품고 대구 등을 거쳐 광주의 언니 김함라의 선생(남궁혁 장로의 부인) 한국 여성운동의 선구자 집으로 가져와 2·8독립선언에 대해 알렸다. 광주의 3·1만세운동은 최홍종이 서울에서 체포되자, 김철을 중심으로 남궁혁의 집에서 교인들과 비밀 독서모임 회원들이 거사를 계획하고 역할을 분담하면서 3월 10일 광주천 작은 장터를 휩쓴 만세 물결은 본정을 거쳐 법원 앞을 지나 경찰서 앞까지 진행됐다. 이중 수피아 여학생 윤형숙은 한쪽 팔이 일본 경찰의 칼에 잘려나가자 다른 팔로 태극기를 흔들며 일제를 놀라게 했다. 유혈진압 끝에 100여명이 체포되고, 교회당은 불수됐다. 그러나 만세운동 후 광주에서는 이념을 초월한 전면적인 사회운동이 활발히 전개돼 이후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으로 이어졌다.

Kim Maria, who had played a part in the February 8th Independence Declaration in Tokyo, Japan, in 1919, instead carried the February 8th Declaration of Independence to Korea. She traveled through Busan and Daegu carrying the February 8th Declaration of Independence. She took it to her older sister's house, Kim Han Ra, who was the wife of the presbyter, Nam Gwanghyuk, and the pioneer of the Korean Women Movement. Kim Maria told her sister about the February 8th Independence Declaration that had taken place in Tokyo. After Choi Hwang Jung was arrested by Japanese police in Seoul, some Christians and secret reading members of the Holy Bible met in the house of Nam Gwanghyuk. They planned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in Gwangju under Kim Chui's guidance and discussed each member's roles and responsibilities. On March 10, 1919, the Independence Movement swept through the Gwangju area. The wave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touched off a small market around the Gwangju Station leading through to Chungjeong-ro, Gwangju Law Court, and Gwangju Police Station. During the Independence Movement, Yoon Hyungsook, Gwangju Daegu Girls' High School student, lost her arm by Japanese police's sword. Moreover, around 100 citizens were arrested after the Japanese Ministry crackdown and the church where Christians gathered for worship was confiscated. However, the Independence Movement contributed to the scale, speed, and movement beyond ideology in Gwangju. After all, the potential and power from the Gwangju Independence Movement was extended to the Gwangju Student Independence Movement in 1929.



정율성 흉상

광주 출신 중국 혁명음악의 대부

양림동에는 중국에서 3대 작곡가로 손꼽히는 정율성 1914~1976의 가옥, 흉상, 정율성 거리가 있다.

그는 1914년 광주에서 태어났으며, 광주숭일보통학교를 마치고 1933년 항일운동에 가담한 형들을 따라 중국으로 건너간다. 난징(南京)의 조선혁명간부학교에 입학해 1934년 졸업 후 비밀활동을 하면서 피아노를 배웠다. 상하이(上海)에 가서 외국인인 크리누아에게 작곡과 성악을 배웠고, 1937년 프랑스에서 작곡공부를 했다.

정율성의 음악성에 독립정신이 깃든 것은 항일 투쟁에 나선 형들과 3·1만세운동, 그 후 여러 사회 운동에 중심으로 나선 양림리 관련 인사들의 영향이 컸다.

정율성은 양림리에 위치한 교회, 숭일학교, 선교부(양림산), 외가(큰 외삼촌 최홍중 목사, 작은 외삼촌 최영옥 의사, 외숙모 김필례 여사) 등의 영향을 받으며 자랐다.

수피아교사를 역임한 부친 정해업 역시 독립운동에 투신했다.

그의 아내 정설송은 1949년 중국 공산화 이후 초대 네덜란드 대사를 지낸 중국 정부의 요인이었다.

정율성은 상하이와 연안 등에서 성악은 물론 작곡과 피아노, 바이올린 등을 배우며 음악활동을 했다. 중국의 아리랑 격인 '연안송', 중국 인민해방군가인 '팔로군행진곡' 등은



위 정율성 가옥 아래 정율성 거리



정율성과 그의 아내 정설송

중국인들에게 사랑받는 노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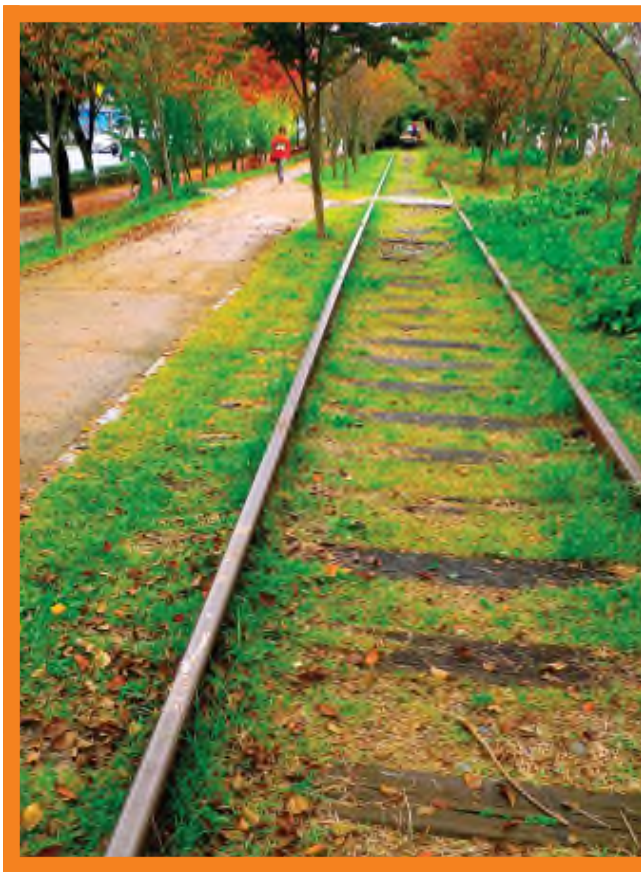
이후에도 그는 베이징인민예술극원, 중앙가무단, 중앙악단에 종사하면서 일생동안 모두 400여 편의 작품을 남겼으며, 1976년 베이징에서 62세로 타계했다.

선생은 중국의 국립묘지 격인 베이징 시내 빠바오산 혁명묘역에 안장돼 있다.

이 같은 공로로 정율성은 중국 창건 50돌인 2009년 '신중국 창건 영웅 100인'에 뽑혔으며, 중국의 3대 작곡가로 추앙받고 있다. 윤이상에 이어 한국이 낳은 또 한 명의 세계적 음악 스타인 셈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그는 한동안 금기의 인물로 치부돼 왔다. 중국에서 공산당 활동을 했으며, '인민해방군가'를 작곡했다는 이유에서다.

양림동 초입의 정율성거리전시관에서는 연안송을 비롯하여 그의 노래들이 흘러나온다.



기차길, 공원이 되다

“기차길 옆 오막살이 아기가기~잘도 잔다 / 칙~폭~칙칙~폭폭~칙
칙폭폭~칙칙폭폭 / 기적소리 요란해도 아기가기 잘도 잔~다.”

초등학교 음악책에 나온 윤극영 작곡, 윤석중 작사의 동요로 40대 후반 이후세대들이 가장 애창해온 동요다. 남자 아이들은 새끼줄로 네댓 명이 기차놀이 하며 이 골목 저 골목 쫓다니고, 여자 아이들은 고무줄놀이로 골목 공간에서 즐겨 부르던 노래였다.

경전선 기차가 다니며 새벽잠을 깨운 양림동 철길이 있었다. 남광주역에서 출발해 백운동을 지나 지금은 혼적조차 사라진 간이역인 벽도역, 그리고 효천역을 지나 여수로 향했다.

광주의 도심권을 반 바퀴 정도 휘감아 도는 철길이었는데 그것은 경전선 철길로 송정-극락강-광주-남광주-효천으로의 철길이었다. 근대화 시대를 이끌었던 철길은 1922년부터 2000년까지 78년 동안 서민의 애환을 실고 달렸으나, 도시의 팽창과 철도 시설의 이용증가로 인한 열차소음, 사고 등으로 기차길 옆 동네 기피현상이 철로주변을 슬럼화시켰다. 주민들은 철도 이설을 꾸준히 요구했고, 그로 인해 송정-서광주역-효천으로 바뀌었다. 광주도심에는 길이 10.8km, 너비 8~26m, 면적 16만 5,000㎡인 띠 모양의 기차길 터만 남게 되고 2002년 5월 광주역~동성중 7.9km의 폐기차길이 푸른길 공원으로 지정돼 기차길이 공원으로 탈바꿈했다.



1 양립휴먼시아에서 내려다본 푸른길 공원의 가을 정취



푸른길 공원은 크게 4구간으로 나뉘져 있다.

1구간 '오감^{五感}길'은 중흥동 팽주역에서 신수동 굴다리까지 1.7km 구간이다. 옛 기차길의 흔적과 철길 옆의 따닥따닥 붙어있는 집들과 골목길 이 옛 정취를 느끼게 만드는 곳이었다. 철길 주변의 숲길, 문화공간과 운동시설기구까지 갖춘 주변의 마을 쉼터 마냥 편한 곳이다.

2구간 '배움길(1.7km)'은 신수동 굴다리에서 남광주역까지이다, 아 마도 조선대를 비롯해 살레시오여고 등 학교들이 많이 있어서 붙여진 것 같다. 그리고 이곳에는 신수시장의 먹거리 집들과 동명동 한옥을 이

용한 분위기 있는 카페들이 들어선 문화촌이 형성됐으며 근래에 와서는 환경 개선사업으로 문화공간이 조성되고 있다. 농장다리는 팽주교 도소와 얹혀진 이야기가 있는 곳이다.

3구간 '물 숲길(2.1km)'은 남광주역에서 백운광장까지이다.

4구간은 '이음길'로 명명됐으며, 백운광장 진월동 입구에서 동성 중구간으로 2.6km에 이른다. 주월동 마을길, 참여의 숲, 금당산, 광복 천 등 걷기 편한 길이다. 중간 중간 문화공간도 있고, 주월동 인근의 휴식공간으로 잘 꾸며져 있으며, 첫 출발지로부터 7.9km 중점이다.

한센병 치료·결핵 퇴치 앞장... 광주 의료 새 지평을 열다

미국남장로교 의료 선교사인 놀란Dr. J. W. Nolan은 1905년 11월 5일 광주에 도착했다. 이어 20일 오후, 배유지 선교사의 임시 사택에서 9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이것이 바로 광주제중원의 시작이다.

그동안 환자들은 각종 민간요법과 미신적 치료에 의존하고 있었다. 광주제중원이 개원하면서 수술을 통한 근본적이고 과학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의료를 통해 효과적인 복음 전파가 이뤄졌다.

우월순 선교사는 1911년 현대식 의료시설을 갖춘 광주제중병원(Mellen-Lawne Graham Hospital)을 신축했다. 이듬해에는 '광주나병원(우리나라 최초의 한센병환자요양소)'을 건립했다. 광주나병원에서는 한센병 치료는 물론, 환자들이 완치 후에도 자활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까지 병행했다. 한센병 환자들의 천국이요, 보금자리였던 셈이다.

1930년, 부란도Dr. L. C. Brand 선교사가 3대 원장에 취임하면서 당시 망국병으로 불리던 결핵 퇴치에 전념하게 됐고 1938년, 안타깝게도 그는 선교현장에서 순교하여 양림동산에 묻혀 있다. 병원은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웃에게 치료약과 먹을 것을 나눠줬고, 각종 구호물자로 빈민을 구제했다. 또한 광주·전남의 여러 곳에



개원 110년이 되는 해인 2015년 새로운 모습으로 재도약한 광주기독병원의 미래 조감도

집단 재활촌을 세워 무의탁 결핵 환자들의 치료 후 생활까지 돌봤다.

1970년 미국 남장로교 한국선교회 유지재단에서 분리하여 '재단법인 광주기독병원'으로 개편한 후 생명존중을 통한 의료 선교, 환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전인치료, 환자안전 최우선 병원,



190 광주근대역사문화마을, 양림을 걷다

양림정형 공공기술 2.0 프로젝트

개원 2세기 비전 프로젝트인 소외된 이웃을 향한 밀알정신과 선한 사마리아인 정신의 계승으로 독자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제중병원에 대한 기억 : 탐험대원 문월식

형이 있었다. 지금은 천국에 있다. 내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을 무렵, 장성 사창이라는 촌에서 형과 함께 살았던 적이 있다.

한달에 한번 꼴로 어머니는 외출을 했다. “제중병원에 갔다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어머니는 버스에 오르셨다. 멀정거리는 버스가 희뿌연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눈앞에서 점점 희미해져 갔던 모습은 아직도 눈에 선하다.

1970년대, 학교 나무 그늘 아래 땅이나 마을의 골목은 아이들의 놀이터였다. 나는 형이랑 동네 아이들과 함께 놀다가 어느 순간 형이 땅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가끔 봤다. 그때는 건성으로 들었는데 커가면서 사정을 알게 됐다.

형은 어린시절 보리밭에서 보리를 망치며 놀다가 주인이 쫓아오자 달아나다 놀란 이후로 경기가 일어났다고 한다.

그 당시 제중병원의 약효는 소문이 자자해서, 어머니는 약을 지으러 먼 광주까지 갔던 것이다. 어머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형은 어느 해 여름, 아버지와 나랑 마을 앞 보성강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어린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제중병원이란 단어의 첫 기억은 이렇게 나의 소년 시절 형의 아픔과 어머니의 모정에서 비롯됐다.

광주기독병원의 효시인 제중병원은 이렇게 호남민중들의 가슴속에 살아 숨쉬는 근대문화의 고마운 유산으로 영원히 녹아있을 것이다.

1 개원 100주년 기념식수 2 양림동신에서 바라본 광주기독병원 3 개원 100주년 기념비 4-5 역사문화자료전시관

조선에 온 의료 선교사들의 헌신

기독병원 구내식당 쪽으로 향하는 길로 들어가면 나무가 우거진 아주 작은 공원이 있다. 이곳에 우월순, 포사이드, 카밍스 여사 등 의료 선교사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앞서 선교사 사택에서 간략하게 우월순 선교사에 대해 소개한 바 있다. 여기서는 의학적인 관점에서 본 우월순을 조명하고자 한다. 제중병원 2대 원장인 그는 제중원과 여수 애양원의 기틀을 닦은 '병자와 고아들의 아버지'로 손꼽힌다. 28세 열혈 청년으로 광주 선교부 의료 선교사로 온 우월순은 밤낮없이 병자들을 돌봤다. 1909년부터 조선 최초로 한센병 치료에 나섰고, 1912년에는 처음으로 한센환자 진료소를 차렸다. 이 때 서서평 선교사와 함께 많은 환자를 구했다. 1927년 총독부는 병원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옮기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이때 여수로 이전하면서 애양원이 만들어진다. 우월순은 왕성한 진료 활동과 함께 후학을 양성하기도 했다.

우월순은 1940년에 일제에 의해 강제 귀국 조치됐는데, 1946년에 미 군정청 자문관으로 다시 한국에 와 나병 퇴치 사업을 도맡았다. 이후엔 미국으로 돌아가 1948년부터 1963년까지 월드미션 책임자로 봉사했다.

우월순 기념비 옆엔 포사이드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한센병 환자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나환자의 아버지'라 불렸던 포사이드 W.H. Parsythe, 1873~1918 선교사를 기리기 위한 것이다. 포사



위 선교사비 아래 5·18민중항쟁 사적지 표시석

이드 선교사는 목포지역에서 의료선교사로 활동하다, 1909년 4월 친구인 오웬 선교사가 폐렴에 걸렸다는 전보를 받고 광주로 향한다. 그 길에서 한센병 환자 한명을 만나 병원으로 데려오지만, 다른 환자들의 거센 반발로 발걸음을 돌린다. 벽돌을 굶던 가마터에 임시로 나환자를 수용하고, 치료에 전념하던 중, 친구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된다.

포사이드 선교사가 한센병을 치료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인근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 광주에 있던 선교사들은 임시로 양림동에 세 칸짜리 초가집 한 채를 마련, 환자 7명을 수용했다. 이후 정식으로 요양원 건물을 마련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한국 최초 한센병 전문병원인 광주나병원 의 시작이었다. 그는 한센병원이 생기기 전인 1911년 스푸르병에 걸려 미국으로 돌아갔다. 그는 미국에 가서도 “조선은 앞으로 아시아 선교의 중심이 될 것이다”고 말해 조선에 선교사들을 유치하는 데 힘썼다.

포사이드 기념비 옆엔 ‘카밍스여사 송덕비’가 있다.



좌 카밍스여사 송덕비 우 카밍스여사 송덕비 뒷면



빌립기념화단 표지석

“그의 인자현숙한 모습 영원히 색이고져

— 1954년 3월 입원한지 김용태 씨 일동”

한국전쟁 후 폐허 속에서 병원이 재개원할 무렵, 김에스더(Miss R.A. Cumming) 간호선교사가 기독교병원 간호부장으로 왔다. 특히 그녀는 환자들에게 헌신적이기로 유명했다. 이 송덕비는 환자들이 그를 기리기 위해 세운 것이다.

한편 고허번(Dr. W.L. Godington) 제5대 병원장의 4남 빌립 카딩턴을 기리는 ‘빌립기념화단’ 표지석도 기독교병원 정원에 세워져 있다.

그런가하면, 광주기독교병원 입구 화단부에는 5·18민중항쟁 사적지 표지석이 서 있다.

당시 병원에서는 부상당한 시민들을 헌신적으로 치료했다. 수많은 시민들과 초등학교생들까지도 자발적으로 헌혈에 동참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양림동 터줴대감 김성봉 원장 인터뷰

“유년기 나를 키운 양림동 나무들…
아끼고 지켜줘야”

양림동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외과의원을 운영하는 김성봉 원장은 도쿄에서 태어나 유치원생 때부터 광주 양림동에서 살았다. 유년시절과 학창시절을 양림동에서 보내 이곳에 얹힌 옛 추억이 가득하다.

“6·25전쟁을 이곳에서 겪었습니다. 어렸을 적 동네에서 놀았던 기억이 생생해요. 1954년, 당시 학강초등학교 4~5학년 재학 무렵이었는데, 기독교병원을 바리케이드삼아 놀던 것이 생각납니다. 놀이터가 따로 없었어요, 당시 카딩턴 의사가 기독교병원에 취임해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했었습니다.”

그의 기억대로, 기독교병원(당시 제중병원)은 1940년 일제에 의해 선교사들이 추방되면서 폐쇄됐다. 이후 고허번(카딩턴) 선교사가 5대 원장으로 취임하며 제중병원은 다시 문을 열었다.

김 원장은 전공답게 당시 제중병원에 새로 온 의사들에 관한 이야기 들려줬다.

“호주에서 온 닥터 심슨 덕분에 흉부외과가 발전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생 때였는데, 심슨 박사가 오면서 폐절제술이 이뤄졌어요, 이후 미국에서 온 의사가 1~2년 정도 제중병원에 잠시 머물다 갔는데, 그 의



사는 눈으로 보지 않고도 수술을 한다며 명성이 자자했어요, 미국에서 돌아오신 허진득 원장은 내과를 전담했고, 브릿지만 의사는 수술을 굉장히 잘한다고 소문났었죠.”

양림동에서 오랫동안 동네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졌던 개인병원도 기억했다. 그는 “지금 양림동 주민센터가 지어지고 있는 곳의 옆 골목에 ‘유성의원’이 있었는데, 일제때부터 6·25 이후, 내가 대학생 시절 때까지 진료를 했었다”면서 “그 병원 원장의 두 아들도 유명한 의사가 됐다”고 추억했다.

옛 양림동에 관한 이야기는 주로 할머니에게 들곤 했었다 한다. 김 원장은 “1800년 후반에서 1900년 초에는 지금의 석산고 뒤쪽이 공동묘지였다”면서 “선교묘지 인근에 거적떼기로 아이들 시체를 덮어놓는 식이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또 “풍장터가 있어 양림동에 여우가 자주 나왔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여우 쫓으러 많이 다녔다. 전혀 무섭진 않았다. 여우가 한 50m 도망가다 뒤를 한번 본다. 내가 따라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하는 거다. 근데 그 모습이 예쁘고 귀여웠다. 여우는 사람을 무서워한다”고 이야기했다.

까마귀에 대한 기억도 떠올랐다.

“오후 5시쯤일 거예요, 그 시각이 되면 까마귀가 양림동으로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까마귀는 우리나라에선 흔조지만, 외국에선 길조지요, 제 기억에 까마귀 때문에 빨래를 망치거나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까마귀는 사람 사는 집엔 잘 안와요. 산 속 나무에 가 앉든지 왕대밭(정부자집-이장우 가옥) 쪽에 많이 살았습니다.”

까마귀가 날아갈 때면 하늘이 까맣게 뒤덮이곤 했다. 양림동 근방은 들이 넓어서, 낮에는 까마귀들이 문성고 너머 효천 들에서 실컷 낚알 등을 주워 먹고, 저녁 무렵이 되면 참나무, 상수리나무에 앉아 있었다. 사람들이 그 밑으로 지나가면 ‘새똥벼락’을 맞았다. 김원장은 새총으로 까마귀를 잡기 위해 수차례 시도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단다.

어렸을 적 그는 ‘나무 오르기 대장’이었다. 동네 나무란 나무는 다 타고 다녔다. 그래서인지 양림동에 있었던 나무에 대해선 모르는 게 없었다. 김원장은 “1950~1960년대 조선대학교 근처에 ‘신우대’라고 불리는 대나무가 중간중간 있었다. 양림동엔 대나무가 많지 않았다”면서 “현재 호신대 C.C.C. 자리에 중간대라고 토종대 나무가 있었는데, 사이사이에 신우대 발이 있었다. 신우대로 새총을 만들어 팽나무 열매로 쫓던 기억도 난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수피아홀 앞마당 왼쪽에 있는 동백나무는 ‘진짜 보물’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어렸을 때 붉은 동백꽃이 떨어지는 이미지의 모습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때 제가 초등학교생이었는데, 나무의 키가 상당했던 걸로 미뤄볼 때, 일제시대 전에 심어졌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100년도 더 넘었을 겁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온 폐칸과 체스넛에 대한 추억도 있다. 폐칸 나무 열매가 후두둑 떨어지면 그것을 까먹는데 온 정신이 팔렸었다.

나무의 노하우도 있었다. 얇이 뾰족한 열매는 잘 안까지고 맛이 없었는데, 타원형 모양의 열매는 맛이 좋았다고 한다. 폐칸나무는 배유지선교사 사택 앞 두 그루, 우월순 선교사 사택 앞 한 그루, 수피아여고 앞에 있던 세 그루의 열매가 정말 맛이 있었다고.

그는 “지금 테니스코트 두개 사이 경계엔 엄청 큰 버드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께 들으니, 오웬 선교사가 선교하고 돌아온 뒤 말을 묶어뒀던 나무였다”면서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베어버렸다. 아쉬울 따름이다. 그 주변도 다 밭이었고, 배유지, 오웬 선교사 집 뒤엔 한국인 직원들의 집이 있었다”고 회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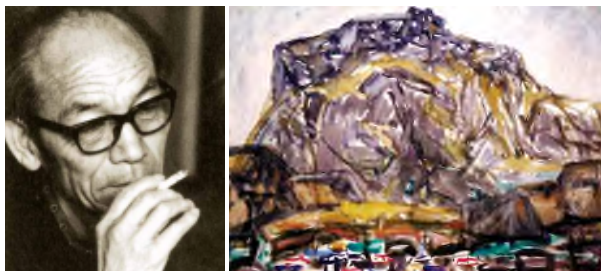
1990년대 후반, 호신대가 본관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베어버린 팽나무에 대해서도 많은 아쉬움을 토로했다.

“어른 셋이 팔을 벌려도 안 닿을 정도로 큰 나무였죠. 선교사가 심은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던 나무였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감나무에 오르다 떨어져 크게 다쳤다. 당시 이장우 가옥 옆 골목에는 적십자병원이 있었는데, 주사를 맞으러 이곳을 자주 찾곤 했다.

“예전에는 양림오거리가 운동장만큼 넓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버스들이 이곳에서 돌았겠죠. 2번 버스 종점이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김원장은 팽주서중 일고 재학 시절, 지각대장으로도 유명했던 일화도 털어냈다. 그는 “시계가 없어 학생기차가 오는 것을 보고 학교에 갈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다. 매일 늦었다. 중학교 1학년 1반 첫 통신문엔 ‘전 서중지각 총사령관’이라 적혔던 기억이 난다”고 웃으며 말했다.



좌 배동신 화백 우 <무등산> 78.5cm×56.4cm, 종이유에 수채 1968

한국 수채화의 선구자 배동신

배동신(1920~2008) 화백은 '한국 수채화의 선구자'로 손꼽힌다. 1920년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서 태어난 그는 유년시절 제도 교육을 받지는 못했지만, 금강산에서 박수근에게 그림의 기초를 익혔다. 17세에 그림 공부를 위해 일본에 유학했다. 1933년가와바타화학교에 입학, 1년여 동안 데생 등 그림의 기초를 익혔고, 이 시절 동경에서 문학수와 이중섭을 만나 화가로서의 열정을 불태운다.

1943년 일본 자유미술창작가협회 정회원이 됐다. 1946년부터는 광주서중학교, 전남여자고등학교, 순천사범학교, 진도중학교, 영암중학교에서 미술교사로 재직하며 작품 활동을 했다. 1947년 제1회 개인전(광주도서관)을 열었고, 1950년대에 양림동에 거주하며 왕성한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1968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수채화협회' 창작가 창립전을 가졌고, 1970년 '황토회' 창립전을 개최하는 등 광주를 무대로 한 미술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1978년 광주를 떠나 서울에서 활

동하다가, 1989년 여수로 내려가 살며 수채화 작업에 매진했다.

그는 평소 "만일 유화를 육식에 비유한다면, 수채화는 채식이라 할 수 있다. 유화가 동적이며 극적인 감동을 연출한다면, 수채화는 은은한 아름다움을 전해준다고 주장해 수채화만의 미학적 특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영산강과 무등산을 그린 이강하

영암 출신의 이강하 화백(1952~2008)은 5·18을 겪고 난 후 2년여 동안 친척집에 머무르게 되면서 양림동과 인연을 맺게 된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든 시기에 양림동은 마음을 다스리게 된 안식처가 됐다.

5·18 이후 광주 도청 앞은 시위대 불결로 비워진 적이 없었다. 그는 작업실을 박차고 시위대에 합류해 진정한 민주주의를 얻어내고자 노력했다고 한다. 당시 5·18 기념식이 열리는 망월동 묘지는 경찰이 감시를 하고 있어 마음 놓고 참석하기조차 어려웠을 때인데도 그는 어김없이 나타나 경찰 친구를 긴장하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시위를 주도했던 지명수배자(전남대 학생) 2명을 작업실에 숨겨주고 보호했던 일도 있었다. 그 어둠의 시기에 '백 연작 시



좌 이강하 화백 우 <무등산-여명의 태평소> 200호F, 캔버스위에 유채·아크릴릭 1992

리즈 작업에 몰두, 프랑스 '르싸롱 전'에 2회 연속 은상을 수상하게 된다. 우리 전통문화를 소재로 한 작품으로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무등산과 영산강 주변의 남도풍경 속에 깃든 역사적 흔적과 삶의 애환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리얼리즘 작가다.

특히 땅을 일구며 살아가는 가난한 농어촌 사람들의 굳은 얼굴과, 표정에 묻어나는 고단한 인생의 질긴 여정을 영산강과 무등산을 배경으로 그렸다.

직장인으로 5년여 간 투병생활 끝에 2008년 타계한 그는 5권의 화집을 발간하고, 개인전 8회, 100여회의 그룹전 및 기획전에 참여했다.

1992년부터 2005년까지 일본, 중국, 중남미, 러시아, 자중해 등을 돌며 기록한 기행문과 풍물화를 신문에 연재기도 했다.

‘검은 머리의 차이코프스키’, 정추

양림동에서 태어난 정추(1923~2013) 선생은 차이코프스키의 음



악 계보를 잇는 작곡가 타네예프의 제자 아나톨리 알렉산드로프로부터 음악을 배웠다. ‘차이코프스키 4대 제자’라는 칭호를 얻으며 ‘검은 머리의 차이코프스키’라 불렸다.

1961년 첫 우주선 발사현장에서 자신의 곡이 연주되는 영광을 안을 정도로 음악적인 천재성을 평가받았으며 구 소련 음악 사전에도 올라있다. 소련 당국이 1961년 성대하게 주최한 ‘유리가 가린(인류 역사상 최초로 우주비행에 성공한 우주인) 패거’ 축하 공연에서 연주된 ‘뱃목의 노래’가 그의 작품이다.

정추는 1957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반 김일성 시위의 주동자로 김일성 우상숭배 반대 시위를 했다. 북한 당국은 그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소련 정부는 북한에 송환하는 대신 알마티로 유배를 보냈다.

고려인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던 카자흐스탄으로 추방된 그는 고려인 강제이주의 고통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다양한 곡들을 작곡했다.

이동의 자유조차 없었던 망명 기간 동안에도 중앙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고려인들의 노래 1,000여 편을 발굴해 악보로 옮기는 소중한 작업을 해왔다. 전래민요와 노동가요 등 1천 여 곡을 수집해 박사학위를 받았고 1988년 카자흐스탄 공화국 ‘공훈예술인’ 칭호를 받았다.

그의 작품은 카자흐스탄 음악교과서에 무려 60여 곡, 피아노 교과서에 20여 곡이 수록돼 있다.

18살의 나이에 광주를 떠나 긴 세월을 타지에서 떠돈 망명 음악가, 23년을 일제와 남한 국민으로, 13년을 북한 인민으로, 17년을 무국적자로, 다시 16년을 소련 공민으로, 그리곤 마지막으로 카자흐스탄 국민으로 살아갔다. 북한에서는 반동분자로, 남

한에서는 월북자로 낙인찍혀 20대에 조국을 떠나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그의 삶은 정처 없는 유랑의 연속이지만 그의 음악은 한국적 정서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생전에 그는 자신이 작곡한 모든 노래를 반드시 한국어로 부르게 했다.

드라마 작가, 조소혜



광주에서 태어난 조소혜 1966~2006 작가는 양림동에서 40년 가까이 살았다고 전해진다. 광주여상을 졸업, 은행원으로 지내다 1984년 KBS '드라마게임-선택'을 통해 작가로 데뷔했다. 이후 '젊은이의 양자', '첫사랑' 등의 작품을 집필해 시청률 50%를 넘나들며 스타 작가로 떠올랐다. 2006년 4월 간암 말기 판정을 받

은 후 한달 만에 별세했다.

이외에도 양림동은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을 배출하며 '광주 예술인들의 동지'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문인으로는 문순태, 문병란, 손광은 등을 들 수 있고 소설가 황석영도 《장길산》을 양림동에서 집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화가로는 황영성, 우제길, 김영만, 한희원, 정운하, 최순임 등이 있다.

에필로그



신정용(스토리텔링대장) 오감으로 다가서면 따스한 손길로 붙잡아 시간여행으로 인도하는 양림동…… 그곳에 있으면 맘이 편안해져서 모두와 친구하고 싶어진다. 오셔서 양림을 느껴보시길!

정정윤 내 어릴적 양림동과 지금의 양림동은 사뭇 다르지만 그 정취만은 영원하기를…….

박지완 삶은 스토리다. 우리는 늘상 스토리속에 살아간다. 그 스토리속에는 우리의 삶이 녹아나 있어, 그 흔적을 찾을뿐이다. 그리고 흔적 위에는 우리의 발자국이 있기 때문이다.

스토리탐험대 활동일지

문월식 사진가로서 렌즈를 통해 일백년이 넘는 역사적 발자취를 들여다 보는 행위도 역사를 기록하는 한 방법이다. 백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고목들과 건물들이 개발의 미명아래 뿔뿔히 나간 이야기도 들었다. 일백년의 유적들을 없애는 것은 참라지만 다시 복원하는 데에는 영겁의 세월로도 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문화유산이고 양림동의 문화유산이기도 하다.

신성진 아! 양림정신이 광주정신이다. 호남의 근·현대사를 모두 느낄 수 있는 이곳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배우야 할 곳이다.

양상주 유서깊은 양림동 문화유산을 발로 뛰며 호흡을 같이하였던 양림스토리 탐험대! 양림동 문화유산과 사람이 아름다웠기에 더 아름다웠습니다.

남충현 양림동 역사는 지금도 숨쉬고 있는 시대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길.....

여의주 두려움반 호기심반으로 시작한 양림스토리탐험대, 익숙했던 양림동의 새로움을 발견하고 나를 더욱 성장시킬 수 있는 시간이었음에 감사한다.

김제면 탐험대원으로 활동하며 양림동에 대해 하나하나 발자취를 더듬어갈 때 광구에 살면서도 몰랐던 양림동에 대한 역사라든지 근대사 또는 선 교황동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얻어 갈 수 있어 좋았다. 여러 대원들과 끈끈한 정을 나누는 것도 참 행복했었고 더불어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다.

최소영 양림동의 과거·현재 미래를 상상하고 발견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기를.....

홍한아 양림동의 이곳저곳 발걸이 닿는 곳마다 마음이 외달아 소소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다.

2014. 6. 24	스토리탐험대의 역할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발대식
2014. 7. 5.	양림동 이해를 위한 초청강의 및 현장투어 워크숍
2014. 7. 22	양림동 스토리자원조사 목록 나눔 및 탐험활동 계획 논의
2014. 7. 26	양림동 탐험동선 계획 논의 및 양림동 둘러보기
2014. 7. 29	양림교회~양파정 탐험
2014. 7. 31	정음성을 주제로 생각, 거리, 융상 등 양림동 주변 탐험
2014. 8. 5.	기독병원~양림동 호랑가시나무 탐험
2014. 8. 19.	양림동 탐험 후 개인별 작성한 스토리탐험 후기 공유
2014. 9. 11.	스토리북 제작 관련 논의 및 권역별 활동장소 탐험내용 논의
2014. 9. 18.	스토리탐험후기 1차 결과물 정리 및 보완사항 논의
2014. 9. 23	스토리북 구성 목차 논의 및 인터뷰 진행
2014. 9. 27.	개인별 스토리탐험 후기(인터뷰 포함) 발표 및 나눔
2014. 10. 14.	스토리북 제목선정 논의 및 인터뷰 내용 공유

광주 근대역사문화마을 양림을 걷다

양림상징형
공공미술 2.0 프로젝트

파넬날 2014년 11월 14일

파넬곳 (재)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파넬이 사경진

글 사진 양림스토리팀합대

신장원(탐험대장) 정창윤 박재완 문월식 신성진 양성주 남충현
김재연 아와주 최소영 홍현아

구성작가 장다운

발행부서 (재)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문화관광콘텐츠팀

503-020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38번길 7(구동 12번지)

담당 이지선·장성준 **탐상** 권규호

만든곳 도서출판 심미안

주소 501-84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487(학동) 2층

전화 062-651-6968

팩스 062-651-9690

메일 simmian21@hanmail.net

등록 2003년 3월 13일 제05-01-0268호

ISBN 978-89-6381-13-4 03980



